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목차

Table of Contents



1
7 우수 정책

2
21 정책 제안 모음
(90개)

3
119 우수 정책
선정 회의

4
123 1차 도서
선정 회의

5
127 2차 도서
선정 회의

6
139 창원시청, 창원시 의회
북카페 책 비치 'SDGs
미니도서관'

7
145 '읽고 제안하기'
참여자 명단

사업취지 및 목적

- 환경보전 및 사회, 경제, 문화를 통합하는 교육을 독서 교육을 통해 시민, 공무원, 기업, 사회단체의 전문가를 양성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책 참여형 온라인 학습 토론 유도
- 독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하고 실천과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유도
- 기업, 학교, 사회문화 단체 등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통해 창원형 지속가능발전 교육 역량 강화를 통한 정책 제시형 교육
- 비대면 시대에 따른 온라인 학습을 통한 창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인식 확산

사업개요

- 기 간 : 2020년 9월 ~ 12월
- 주요내용
 - 지속가능한 창원 만들기 도서선정 위원회 구성
 - 환경, 사회, 경제, 문화 등 17개 목표 분야별 전문가 선정
 - 비대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 시범운영
 - 우수 정책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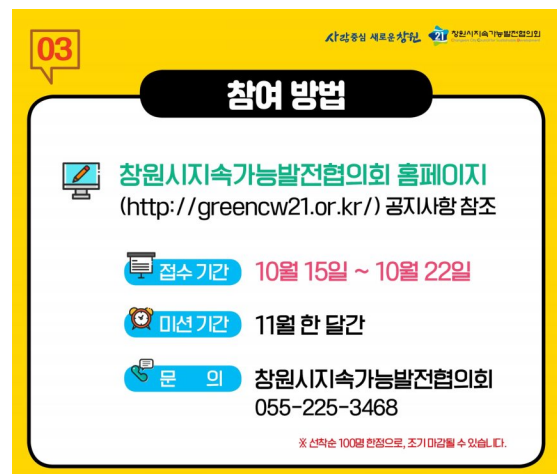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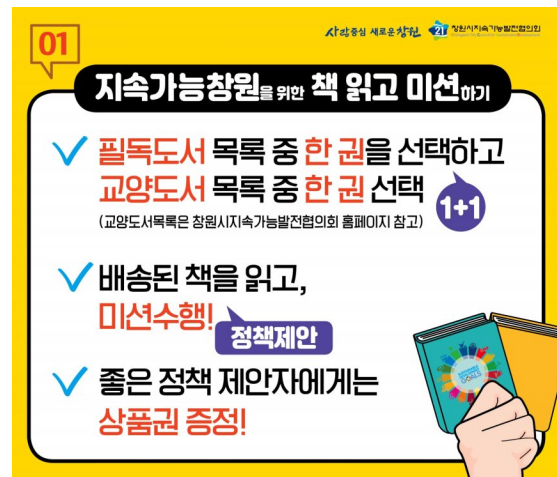
추진계획

- 목 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
 - 창원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정책 제안
- 추진일정

사업내용	시기	비고
• 사업추진 세부계획 수립 • 단체,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지속가능발전 교육 도서 선정위원회 구성	9월	지역대학 및 단체, 교육청, 프로그램개발 전문업체

사업내용	시기	비고
• 비대면 독서 교육 운영 방안 논의	9월	
• 비대면 독서 교육 홍보 및 안내	9월 28일~10월 14일	
• 비대면 독서 교육 참가신청 접수	10월 15일~30일	
• 비대면 독서 교육프로그램 운영	10월~11월	
• 보고서 (정책 의견서) 제출 및 심사	12월	

SNS 홍보 카드뉴스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1

우수 정책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1	우수 정책
---	-------

우수 정책 10선

번호	정책명
1	그린뉴딜을 통한 불평등과 기후위기 선도도시 창원통합시
2	나는 공익활동가
3	먹거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시민 운동
4	‘세계시민교육’ 주간 편성
5	재활용 방앗간
6	지속가능발전센터 구축
7	창원시 '창원에코플랫폼' 구축
8	창원시 연안환경생태체험교육장
9	충분한 자전거 도로 확보 요청
10	충전소 찾아 삼만리

※ 정책 순서는 가나다순

우수 정책 1

1. 정책명

‘그린뉴딜을 통한 불평등과 기후위기 선도도시 창원통합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로봇산업, 인공지능 등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아 이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 제조업 기반의 창원의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
-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산업발전의 이익을 시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3. 사업 내용

- 재생에너지 전담부서 확대 및 신설
- 경남형 재생에너지 산업 특구 조성(예: 충북 태양광특구 등)
- 사회적 약자 위주의 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을 통한 생활비용 저감대책 마련(그린리모델링 지원(사회적 약자, 공공장소 등), 사회적 약자 임대주택 등에 태양광 시설 지원 및 지원받은 주택은 임대료 하향 조정 등)
-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원 등에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반한 생활지원대책(무료 스마트폰 충전시설 확충, 위험지역, 소외지역 등에 재생에너지 기반 가로등 설치, 버스 정류장에 냉난방 시설 설치 등)
- 태양광 산업 등에 대한 시민들에 대한 특성 안내로 이해도 증진
-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한 타격받는 직종별 대응책 마련

4. 기대 효과

- 산업발전에 따른 불평등 최소화
- 사회적 약자가 소외되지 않고 상생하는 산업발전방향 수립
- 기후위기에 앞장서는 그린도시 창원으로 도약

우수 정책 2

1. 정책명

‘나는 공익활동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강화를 위해 미래세대에게 전체 불평등 없이 행복한 사회구성을 위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나는 공익활동가” 라는 정책으로 청소년들이 하는 모든 공익활동에 대한 어떠한 보상도 없이 자신의 활동이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변화해가는 사회의 모습에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가는 동기 부여를 촉진 할 수 있다.

3. 사업 내용

‘나는 공익활동가다’

- 청소년 공익활동교육
- 공익활동에 대한 다양한 개념 정리
- 공익활동을 위한 선택 (사회, 경제, 환경)
- 내가 실천 할 수 있는 공익활동이란 ?

공익활동에 대한 청소년 교육 교육청과 연계한 사업으로 정책 제안

4. 기대 효과

기후변화에 대한 청소년의 생각, 실천할 수 있는 나의 동기부여 등 어떤 한 가지 분야가 아닌 세계시민으로서 내가 해야 되는 기본적인 실천은 환경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 착한소비, 청소년이지만 실천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것을 의식하며 활동 할 수 있는 전체를 알 수 있는 구체적 교육이 필요함.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Changwon City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우수 정책 3

1. 정책명

‘먹거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후시민 운동’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먹거리와 생활실천을 위한 대전환이 필요

창원시 재생에너지 생산이 너무 저조한 상태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 경우 우리의 먹거리에 포함되어 있어야 할 영양분들이 점점 없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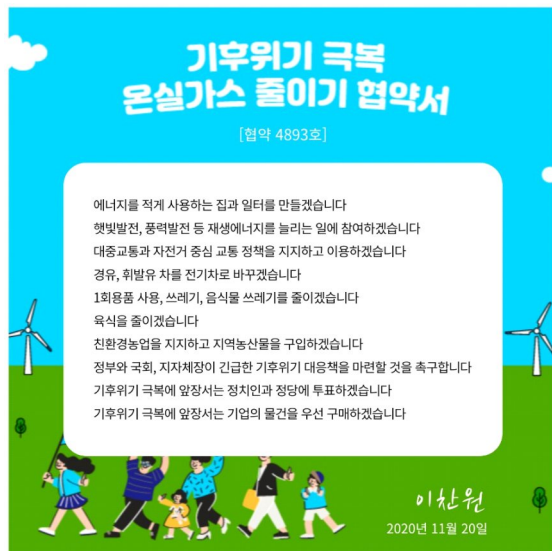
온실가스 배출에 의한 영향은 비가역적 (non-reciprocal)이며 비경계성(non-territorial)인 특징으로 지구생태계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육상생태계와 연안생태계는 물론 심해에 까지 심각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어 어느 때보다 인류의 연대성(Solidarity)이 중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 소비운동, 먹거리 변화, 그리고 교육이다. 학교교육에서 기후위기환경교육을 의무화하고, 일상적이며 체계적인 사회교육을 통하여 기후재앙에 대한 정확하고 깊이 있는 이해와 인식으로 모든 삶의 방식에서 행동하는 기후시민 양성이 절박하다.

3. 사업 내용

살아 보자는 ‘새마을 운동’ 대신 이제는 바로 살아 보자는 ‘기후시민운동’으로 전환하는 소비자 운동이며, 생활실천 운동이며, 사회적 제도적 대전환을 이루는 사업임.

구체적 내용은 아래의 기후시민 실천협약에 나타내고 있음. (기후비상행동 인용)

기후시민 (Climate Citizen)은 기후재앙에 대한 정확하고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방식(Lifestyle)을 바꾸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동참을 권유하며 성찰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사회적 제도적 대전환 (Great Transformation)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후비상 행동시민이 **기후시민 (Climate Citizen)**이다.



4. 기대 효과

미래세대를 위하여 '즐거운 불편함'의 범시민 운동으로 기후재앙을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지구생태계를 유지할 수 있음

우수 정책 4

1. 정책명

‘세계시민교육’ 주간 편성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다양한 종교, 다양한 외모,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고 있음
- 현대 사회는 빈곤, 기아, 환경오염,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등이 생겨나고 있음
- 법, 제도, 정책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의식적 변화는 거의 일어나지 않음

2. 필요성

- 세계시민, 지속가능발전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부족
-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이해 및 논의 필요
- 세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

3. 사업 내용

1. 사업 대상 : 관내 초·중학교 학생

2.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은 다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 및 다문화학생 학습 보조에 중점(협회의 세계시민교육)
- 일부 학교가 아닌 전체 학교에 세계시민교육 및 지속가능발전 교육이 필요
- 타시도 사례: '부산국제외국어고등학교' 세계시민교육주간 운영
<http://school.busanedu.net/busan-ifl-h/na/ntt/selectNttInfo.do?mi=610302&nttSn=50911716>

3.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관내 전체 초·중학교에 '세계시민교육주간' 운영 권고
-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 과정안 제작 및 배포
- 창원 MAMF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4. 기대 효과

1. 전국 최초 '세계시민교육운영주간' 실시로 인한 창원시의 세계시민교육 선구자 지위 획득
2. 기아, 난민, 환경오염, 다문화 문제에 대한 청소년 및 시민들의 수용성 제고로 창원이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도시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우수 정책 5

1. 정책명

〈재활용 방앗간〉

1. 분리수거물품, 재활용품을 손쉽게 가지고 갈수 있고, 방앗간 앞을 지나가면 누구나 들어가고 싶게 만들어서 정확한 재활용 방법에 대해 알고 갈수 있고, 집에 있는 분리수거물품을 가지고 가서 확인받을 수 있는 센터를 만들기
2. 펫/캔 주면 포인트 줄게(순환자원 회수로봇)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는 2주일에 한번씩 분리수거를 하고 있고, 재활용품을 모으고 있는데, 집안에 쌓여 있는 재활용품도 언제든지 가져다 줄 수 있고, 각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하더라도 30%정도만 재활용 된다고 하니 정확하게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알려 줄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2. 시민들에게 쉽게 분리수거 방법을 알려주고, 재밌는 놀이처럼 할 수 있게 분리수거를 하게 하는 기계를

3. 사업 내용

1. 일회용품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생활에서 사용한 일회용품, 분리수거 물품을 정확하게 분리수거 해서 재활용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이고, 최종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대신 다회용품 사용으로 또, 100%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을 사용해서 일상에서 제로웨이스트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주도의 재활용도움센터 + 시민들의 사랑방 컨셉

2. 여수시 이순신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순환자원 회수로봇으로 창원시에도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에 자원순환 기계를 설치해서 일상에서 손쉽게 분리수거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한다. (여수에 여행을가서 봤는데 이런 기계가 있는 여수가 너무 부러웠어요. 창원시에도 이런 기계 설치해 주세요~~~)

4. 기대 효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사용한 일회용품을 정확하게 재활용 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고, 기후위기 시대에 쓰레기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서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우수 정책 6

1. 정책명

‘지속가능발전센터 구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국제적으로 인증받은 평생학습도시이며 지속가능발전(RCE)인증도시이다. 하지만 사회와 학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전담하는 교육센터가 부재하다. 이러한 공백을 채우기 위해 지속가능발전센터를 만들어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3. 사업 내용

- UN 인증한 지속가능발전센터 구축 운영
- 학교와 사회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 커리큘럼의 개발
- 지역의 민간단체 및 NGO, 공익기관들과 연계한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사회적경제 영역과의 협력, 도교육청,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증진

4. 기대 효과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실천들이 창원시에 적용되고 교육됨으로서 도시의 지속가능성 확보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Changwon City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우수 정책 7

1. 정책명

‘창원시 ‘창원에코플랫폼’ 구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가능한 도시, 미래세대의 환경을 배려한 도시라는 의미의 ‘환경수도’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창원시민으로서 강력하게 인식되는 환경수도로서의 역할은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창원시민들만의 환경인식을 개선하고, 보존방법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수혜자는 창원에서 거주하는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환경을 보존했던 나의 행동이, 나중에는 나에게 이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수혜 방법은 동별 자치센터 방문 또는 어플구현을 통해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 있다. 누비자 활용, 길가 쓰레기 수집, 생활요금 절약, 탄소배출량 감소 등 환경보존방안을 실천한 사람들에게 마일리지를 적립해줌으로서 소소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 마일리지는 기준금액을 초과하였을 때 누비전으로 환전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서울시의 에코마일리지를 유사사례로 볼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 창원시는 환경을 보존하는 모든 방안과 기준을 정립하여 창원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추가적으로 시행하고 있던 공유자전거 누비자의 마일리지도 통합적으로 해당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창원시 또는 경남의 소셜미디어매체를 활용하여 에코플랫폼을 광고한다. 해당 사업의 참여혜택, 기대효과를 시민들에게 노출시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사업의 시작을 알리는 MMS를 각 가구의 대표 세대원에게 전송하거나 홍보 관련 이벤트를 실시하여 다운로드 및 접속자 수를 높이게 한다. 모바일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장년층에는 우편발송 또는 자치구역별 플랫폼 담당자가 안내를 할 수 있게 한다.

플랫폼의 활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복잡한 프로세스는 가지면 안되며, 시민과 기업에게 정확한 실천(INPUT)에 따른 분명한 보상(OUTPUT)이 주어져야 한다.

4. 기대 효과

플랫폼의 이점이 강력하게 인식되기만 한다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플랫폼을 기대할 수 있다. 기존의 환경관리 비용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인해 감소하게 되며, 마일리지 적립을 통한 지역화폐 누비전의 활용도까지 상승하여 지역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환경수도의 네이밍효과는 널리 알려져 다른 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다.

1. 정책명

‘창원시 연안환경생태체험교육장’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창원시는 마산만, 진해만, 창포만, 광암만, 난포만, 행암만등 진해구와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를 연결하는 연안도시이다.
- 창원시의 5개구 중 3개구가 연안과 연결되어 있으며 약 40여개 하천이 바다로 유입되는 물의 연결고리이자 생태의 연결고리이다.
- 물과 생명이 연결되어 있는 연안에는 많은 생물의 보금자리이며 피난처이자 산란처이다.
- 이러한 창원시의 바다는 바라만 보는 곳이 아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인식증진 필요하며, 생명의 보고인 연안에 대해 미래세대에게는 생명을 이해하는 좋은 학습장이 필요하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가족들과 미래세대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원시 연안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교육장으로서의 역할
 -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교육함으로써 지역의 환경을 이해하고 스스로 환경실천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1. 연안환경해설사 양성교육

- 기존의 연안환경해설사 또는 생태환경해설사등을 대상으로 지역의 연안 환경에 대한 이해 교육
- 연안의 물리적 환경 및 생태적 환경 이해 교육
- 연안의 동식물 교육
- 연안환경의 스토리텔링 기업 교육

2. 연안 환경교육 수강생 모집 및 프로그램 진행

- 대상 : 가족 및 학생
- 교육프로그램 : 이론 및 현장 체험교육
- 연안 및 바다의 중요성 이해
- 지역의 연안에 대한 이해(마산만, 진해만, 창포만등)
- 연안의 생물(동식물)의 역할에 대한 이해
- 연안(갯벌)에는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는지 현장체험교육
 - : 염생식물에 대한 이해
 - 기수역 저서생물 및 동물 현황
 - 갯벌의 깊이에 따른 생물종 이해
- 여름철새 및 겨울철새 탐방 체험프로그램
- 네이처링, 바이오블리츠등에 생물 등재

4. 기대 효과

- 지역의 많은 환경강사들을 재 교육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을 가져옴
- 환경교육 강사들의 일자리 제공 및 연안환경에 대한 인식증진 효과
- 지역의 환경을 활용한 자연생태교육장의 접목 다양화

우수 정책 9

1. 정책명

‘충분한 자전거 도로 확보 요청’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그린뉴딜의 전략은 자동차를 덜 타도되는 도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기 편한 도로와 도시, 대중교통으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도로와 도시를 우선한다고 적혀 있다. 창원시의 경우 누비자가 활성화되어 있다. 그린뉴딜 전략에 맞춰 자동차를 덜 타도 되는 도시를 위해 누비자가 적극 활용될 수 있게 도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창원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만 마산이나 진해의 경우 창원만큼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3. 사업 내용

충분한 자전거 도로의 확보가 필요하다. 창원시에서 예산을 들여 누비자를 계속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마산의 경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아 그냥 일반 자동차 도로를 주행하고 그게 아니면 도보로 주행하기도 한다. 자전거 도로 확보를 통해 가까운 거리의 정도는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일반 자동차 도로만큼의 자전거 도로 확보하도록 한다.

4. 기대 효과

자전거 도로의 확보로 자전거 이용 증가로 인한 탄소배출량 감소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Changwon City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우수 정책 10

1. 정책명

‘충전소 찾아 삼만리’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전기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충전소 찾기가 부담됩니다. 전기 충전이 빠르게 되지 않는 단점도 있지만 그것보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기에 제일 큰 단점은 간편히 일반 주유소를 이용해서 연료를 5분만에 충전하다가 전기 충전소가 많이 없고 충전시 오래 걸리는 시간 때문에 부담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기자동차가 일반화 되려면 일단 창원시에서 충전소를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3. 사업 내용

현재 한국전력공사에서 아파트용 전기차 충전소 구축사업을 실행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추진되기에는 입주자 동의도 필요하고 조건들이 너무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형 충전기가 아닌 이동형 충전기를 설치한다면 입주자들의 동의도 훨씬 쉽게 받아 낼 수있을 것 같습니다. 이동형 충전기 설치 비용을 입주민들이 부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원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앞으로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시초가 될 것이라 생각 됩니다.

4. 기대 효과

전기자동차 충전소가 일반화 된다면 전기차 구매시 연료충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 들 것이며 전기자동차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요즘 고정형 충전소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고정형 충전소에는 전기자동차만 주차 가능한 단점 때문에 주민들과의 불화도 종종 생기고는 합니다. 이동형 충전소가 불화도 완화하고 전기차의 차주도 눈치 볼 필요 없이 주차 및 충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2

정책 제안 모음
(90개)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2

정책 제안 모음(90개)

1. 정책명

‘연어와 은어가 돌아오는 창원천의 복원을 알리는 연어 치어의 방류와 이를 통한 관광자원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의 뉴스에 은어가 돌아오고 며칠 전에는 연어 10여 마리가 창원천의 파티마병원 인근까지 나타났다고 한다. 그 연어는 하동에서 방류한 치어의 일부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창원천에도 은어나 연어가 살 수 있는 마산만의 환경이 깨끗해 졌고 창원천도 연어의 방류를 통해 시민이나 외지인들이 볼 수 있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또한 창원에 서식하고 있는 수달이 먹이가 없어 로드킬되는 것도 예방할 수 있음

3. 사업 내용

사업 대상 : 저를 포함한 창원시민이 년 초에 치어의 방류사업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창원천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 직접 참여한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으며, 연어가 돌아오는 시기와 지금 하고 있는 국화축제의 시기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맞물려 행사를 같이 진행한다면 지금보다 국화축제의 내용이 더욱 알차고 또 창원천의 얕은 물에서 연어를 실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유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연어의 회귀성이 일시적 현상이 되지 않도록 비가 올 때마다 범람의 우려가 있고 또 대동그린파크 아래(?)로 정비가 되지 않은 하천의 정비를 마무리하여 시민의 휴식공간과 산책의 공간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창원천의 연어회귀 모습은 울산이나 다른 도시와 달리 얕은 창원천에서 시민들이 직접 연어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국화축제와 연계하여 더욱 더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됨

4. 기대 효과

1. 마산만과 창원천의 산업화 시대 오염된 이미지의 개선을 통해 마산만, 진해만을 가진 창원 이 바다의 도시의 이미지가 없는 것을 극복하고 해양의 도시, 휴양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
2. 창원천의 정비의 완성을 통한 시민의 휴식공간이 됨과 동시에 연어의 와이를 볼 수 있는 공간이 됨으로써 국화축제와 더불어 창원이 봄의 벚꽃축제와 함께 가을의 국화축제를 명실상부한 전 국민 축제의 장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 정책명

‘리사이클 아이스팩 수거함과 보급함 설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오늘날 우리 가정에 택배 물품과 함께 동봉되어 어마한 양의 아이스팩이 배달되고 있다.

아이스팩은 고흡수성 폴리머와 물을 혼합하여 만들어지는데 고흡수성 폴리머는 미세플라스틱의 일종으로 폐기가 쉽지 않고 이러한 아이스팩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물을 잔뜩 머금은 폴리머는 불에 잘 타지도 않으며, 잘 썩지도 않는다.

그리고 비닐 포장을 뜯어 싱크대에 버리기도 하여 강으로 유입될 경우 해양오염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어패류를 통해 다시 우리 식탁 위의 먹거리로 돌아오게 된다.

아이스팩을 한 번만 사용하고 버려 자원이 낭비되는 것을 막고 환경오염도 줄일 필요성이 절실하다.

3. 사업 내용

현재 창원시의 경우 진해구를 중심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다.

- 수거함을 5개 구 전체 행정복지센터와 공공주택에 설치
- 현재 수거된 아이스팩을 필요 요청이 있는 전통시장, 업체, 개인에게 나누어 주고 있음
- 전통시장처럼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는 곳에는 상시 보급함을 설치

4. 기대 효과

아이스팩의 내용물을 무분별하게 버리지 않으면 점점 좋아지고 있는 창원시의 수질 개선에 커다란 효과가 있음은 물론이고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보급된 아이스팩의 재사용으로 경제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1. 정책명

‘저탄소 idea 경진대회(제조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 산업의 근간이 되는 제조업이며, 이들 공장에서 배출하는 탄소가 창원시 전체 탄소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함. 각각의 기업에서 나온 Idea를 취합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적용에 필요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하여야 함.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창원시 제조업 종사자 및 창원 시민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기존사업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각 기업의 사장 및 EHS(안전환경보전) 담당자들에게 저탄소 Idea 공모전을 실시하고, 각각의 기업에서 나온 Idea를 취합해서 실효성이 있는 정책의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적용에 필요한 정책적-경제적 지원을 함.

4. 기대 효과

다양한 제조업군이 존재하나, 유사 업종의 회사들도 많으므로 우수한 Idea 하나가 창원 제조업 전반에 탄소 절감에 기여함. 더 나아가서 창원과 같은 제조업 중심 도시들에도 함께 이러한 정책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탄소 배출 전반을 절감시키는 효과가 기대됨.

1. 정책명

‘공공기관 화장실 내 핸드 페이퍼 타월 없애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불필요한 쓰레기 재생산
- 과도한 페이퍼 타월 사용
- 페이퍼 타월이 없어도 손을 말리는 데 지장 없음
- 핸드 드라이어 적극 활용

3. 사업 내용

- ※ 공공기관(학교, 도서관, 관공서 등)에 위치한 핸드 페이퍼 타월 제공을 중지한다.
- ※ 불필요한 페이퍼 타월의 남용을 막아서 쓰레기의 배출을 줄인다.
- ※ 이미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핸드 드라이어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페이퍼 타월은 불필요한 실정이지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페이퍼 타월을 마구 뽑아서 쓰기에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페이퍼 타월이 없던 시절에도 불편함 없이 잘 지냈다.

4. 기대 효과

- ※ 페이퍼 타월 구매 비용 절감
- ※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드는 인적 비용 절감
- ※ 쓰레기 자체를 줄일 수 있어서 환경 보호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음.

1. 정책명

‘플라스틱 재사용 마일리지 적립’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녹색도시, 에코도시 창원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거시적으로 전세계 환경의 보전을 위해 [플라스틱 재사용 마일리지 적립] 제도를 건의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플라스틱 배출에 열심히 참여하고는 있으나 제대로 분류 배출하지 않아 생각보다 재사용률이 높지 않다고 합니다. 이 정책을 통해 플라스틱의 재사용률을 높이고 재사용을 통한 수익을 정책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나누어주어 모두가 환경을 위한 발걸음을 걷고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창원시 소재 각 가구별 혹은 개인별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일본 가미카쓰 마을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재사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각 아파트 단지 및 주택단지마다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정확하게 분류배출 할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플라스틱을 분류배출 할 때마다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분류배출에 대한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누비자 회원권을 할인해준다든지, 창원사랑상품권 구입시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4. 기대 효과

플라스틱 재사용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의식도 높일 수 있으며, 긴 시각에서 보았을 때 지구 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일조할 수 있는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1. 정책명

‘창원시 올바른 환경 지킴이 및 건강·안전 돌봄 사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창원시 코로나 2단계로 접어들면서 집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달 및 포장음식이 늘어나 용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되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급격하게 건강상 이상들이 오면서 비만과 우울증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장을 할 경우, 영업장에서는 포장용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 사용하는 것처럼 개인용기 사용을 권장하거나 배달을 시킬 경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방법 및 가정용 분리수거함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집콕 생활 공유 및 홈 트레이닝 수업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맞춤형 1:1 비대면 상담을 통해 창원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이 코로나를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 대상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위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에서 설명했듯이 첫 번째 영업장에서는 포장을 할 경우, 포장용기를 사용하기 보다는 카페에서 개인 텀블러 사용하는 것처럼 개인용기 사용을 권장하거나 배달을 시킬 경우,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더라도 시민들이 올바른 분리배출을 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 방법 및 가정용 분리수거함 제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다양한 집콕 생활 공유 및 홈 트레이닝 수업과 우울증 예방을 위한 맞춤형 1:1 비대면 상담을 통해 누구나 창원시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4. 기대 효과

개인 용기를 사용함으로써 쓰레기 대란 현상이 줄어들 것이고, 가정용 분리수거함을 사용함으로써 실생활 분리수거 실천이 가능하며, 창원시 홈페이지를 통한 코로나 극복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 정책명

‘창원시민 환경 가족 콘테스트’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새로운 정책을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결국 시민이 체감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진다.

제일 좋은 방법은 역시 체험과 경쟁을 통해 느끼며 실천하는 방법일 것 같다.

3. 사업 내용

- 가족단위 환경 분야별 콘테스트 경진대회
- 보통 사회단체나 기관위주로 진행하는 행사는 식상하고 효과가 적다.

4. 기대 효과

엄마, 아빠, 자녀가 공동으로 가족을 구성하고 함께 살아가는 우리시의 최소 공동체로서 소중한 실천이 환경을 보존하고 가꾸는 시작이 된다는 가치를 체험과 경쟁이라는 놀이를 통해 느끼게 된다면 효과는 배가 될 것이다.

1. 정책명

‘청소년과 함께하는 ZERO 플라스틱 대회 개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은 환경올림픽으로 불리는 2008창원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로 창원시가 세계의 환경수도로서의 기반을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국가적 과제로 시행하고 있는 녹색성장, 기후변화 대응, 하천 복원사업을 선도 및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진 도시입니다.
-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됐던 지난 90년대초 낙동강 폐놀사건 이후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강변여과수를 개발했던 저력이 있습니다.
- 좁은 면적을 가진 분지형 구조라는 지리적 특징과 대규모 공업단지 소재로 인해 대기 및 수질 오염에 취약할 것이라는 '일반적 관념'을 극복하려는 강한 '지역의지'가 있습니다.
- 독일에서의 경우처럼 환경수도는 본래 시민운동의 성격을 띠며 시민참여가 성공의관건인 바, 창원시민과 시민단체는 축적된 우수한 환경보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청소년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대화식의 진행은 현재 없음

(제주도 재활용 및 쓰레기 줄이는 장터 운영)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창원시는 창원, 마산, 진해 각 구별로 청소년어울림 마당이라는 행사를 국비등을 포함한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공식적인 행사임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행사를 활용하여 환경에 대한 인식과 실천등을 통해 환경감수성을 향상 시켜줄 필요가 있음
- 행사내용에 재활용공모전대회, 역새젓가락 사용, 일회용 사용을 하지 않은 행사추진 등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운영
- 창원조각비엔날레 작품 중 용지공원에 전시되어 있는 플라스틱 작품과 같은 공모전이나 대회 개최 (작가 소수참여 ⇒ 다양성 다수참여, 비전문가 참여)

4. 기대 효과

- 봉사활동과 연계한 지속적인 사업운영을 통해 청소년 및 지역사회에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심어주는 계기마련
- 환경감수성 함양

1. 정책명

‘창이와 원이가 함께하는 재활용 캠페인’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2월말부터 페트병과 플라스틱의 분리배출이 의무화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며 취지에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창원시민에게 이를 널리 알리고 실천을 유도하고자 한다.

3. 사업 내용

창원시보에 창이와 원이가 함께하는 재활용 및 분리수거 요령을 만화로 그려 게시한다. 아울러 홍보포스터도 제작하여 곳곳에 게시한다. 타시도에서 한 시도이지만 그래도 창원시민에게 친숙한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4. 기대 효과

재활용 및 분리수거의 요령에 대한 이해 증가 및 창원시보의 계몽 효과가 증대될 것이다.

1. 정책명

‘분리수거 피드백이 필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연한 기회에 두 권의 책을 선택하여 선물로 받고나서 과제 제출이라는 미션 때문에 읽게 되면서 깊이 고민해봅니다.

국가 ,지역정책을 이해하고 따라 가는데 중요한데 개개인이 작은 실천을 하고 성과를 내려면 첫째 불편하지 않아야 하고 지속적인 실천 가능해야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요. 예를 들어 저같이 우유팩을 모아 주민센터에 가서 휴지를 교환가능 해야하는데 전화문의 해보니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잘 모르는 거 같아 아쉬웠어요. 그동안 모은게 헛수고같아서.....어쩌면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적어서 그랬거나 생각들었지만 한사람의 작은 실천이 모여서 선한 영향력을 감는거 아니겠어요?

3. 사업 내용

요즘 카페문화가 활성화 되다보니 1회용 컵 쓰레기가 길가 어디서든 마니 버려져 있는걸 볼수 있는데 재활용 분리수거차원에서 1회용 컵이라도 어느 정도 모아오면 주민센터에서 종량제 봉투로 교환해 줄수 있다면 훨씬 마니 모아 줄수 있을거 같아요. 언젠가 길가에 버려진 일수 명함 주워가면 종량제봉투 교환해준다고 동네할머니들 마니 줌는걸 본적이 있어요. 그것처럼 예를 들어 1회 용컵 30개에 종량제봉투5리터 한장 이러게요. 그러면 카페 원장들도 컵만 분리수거율이 향상 될거 같으 제 짧은 생각입니다.

4. 기대 효과

분리수거를 실행하고 있지만 실제 재활용 되는 확률은 적다하니 약간의 보상이 있다면 질조은 실천이 따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1. 정책명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환경활동 제안하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학교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환경에 대한 교육은 많이 받고 있는것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으로 교육을 받고 참여할수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3. 사업 내용

창원시 초,중,고등학생외 청소년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해서 봉사점수를 받듯이 환경활동을 통해서 환경점수를 받게 하여 참여하게하면 좋겠습니다.
자세하게 재활용방법, 여러 가지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실생활에서 좀 활용할수 있게 가르쳐 주고 아이디어 공모전 같은것도 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대 효과

환경보호라고 하면 그냥 막연하게 들리겠지만 재활용 방법도 배우고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는다면 좋은 습관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아이들의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바뀐다면 그 가정이 바뀔것이고 후에는 환경오염도 좀 덜해지지 않을까요?

1. 정책명

‘플라스틱 포장 줄이기 “적극 동참기업” 장려정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버려지는 플라스틱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개개인의 양심에 호소하거나 무의미한 캠페인을 벌이는 것보다, 실제 플라스틱을 소비하게끔 유도하고 있는 기업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 사업 내용

예를 들면 음식물 포장시 플라스틱보다 재활용 가능한 종이를 활용하거나 마트에서 플라스틱 제품들을 줄이거나 하는식으로 적극 동참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4. 기대 효과

기업은 인센티브(세제 혜택, 우수기업 인증 등)를 위해 적극 동참할 경우 사회적 기업으로서 홍보 효과도 덩으로 얻을 수 있기에 실질적인 플라스틱 사용량 감소에 큰 도움이 된다.

1. 정책명

‘재활용 분리수거 창원시에서부터 제대로 시행합시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재활용되는 물건과 안되는 물건을 홍보의 날을 통해 알리고 시민들에게 재활용과 관련된 캠프, 이벤트를 통해 제대로 홍보하고 알리면 좋겠습니다.

3. 사업 내용

신문은 신문대로 모으고, 우유각은 우유각대로 모으고 등등 껍질을 까지 않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에 넣지 않고, 또한 껍질이 잘 까지지 않게 제작된 플라스틱 용품의 제품은 사지 않기 등등~~ 이와 관련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4. 기대 효과

창원시부터 시작하여 대대적인 홍보가 된다면 환경지킴이 창원시 환경사람 창원시로 알려질 것 같습니다

1. 정책명

‘청소년 참여형 환경생태 문화축제 개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실제 과학체험관이나 수학체험관 등의 공공기관들과 각급 학교에는 과학과 수학 동아리들이 활동하고 있어 매년 과학축제 및 수학축제 등의 참여형 행사가 많이 개최되고 있으나 도심에서 개최되는 환경생태에 대한 청소년 참여형 행사는 접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

3. 사업 내용

대표적인 환경생태 관광지인 창원 주남저수지, 진행만 생태숲과 창원 인근의 창녕 우포늪, 김해 화포천습지 생태공원 등의 환경단체와 연계하여 창원지역에서 대규모 환경생태 알리미 체험문화행사를 개최한다.

봉사활동 인증이 필요한 청소년에게는 참여시 봉사활동 인증을 통해 참여율을 높인다.

4. 기대 효과

2008년 창원 람사르 총회 개최를 통해 얻게 된 환경수도 창원으로서의 이미지와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환경생태에 대한 호기심 자극을 통해 향후 우리가 살아가는 미래 창원이 자연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 믿는다.

1. 정책명

‘잘 버린 당신, 지구를 구한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편리성이 강조되어 일회용품 사용이 당연히 되는 요즘, PET 용기에 든 음료, 생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또한 더욱 늘어났습니다. 아파트마다 분리수거를 하고는 있지만 정말 제대로, 잘 하고 있는 걸까요? 페트병 분리배출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3. 사업 내용

알아보니 환경 문제가 점점 이슈가 됨에 따라 기업에서도 친환경, 에너지효율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한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순환자원 회수로봇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는 22곳 이상 설치가 되어 있지만 창원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았고, 수거함 또한 김해에 딱 하나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창원시도 미리 개발이 된 순환자원 회수로봇을 이용하던지 또는 새로운 업체와 제휴하여 개발을 하던지 해서 사람들이 지구를 위해, 지구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생물들과 사람들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투명 페트병은 플라스틱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재활용품으로 재활용 업체에서 폐쇄 후 세척해 재생원료로 생산하여 시트, 장섬유, 단섬유, 기타소재 등으로 만들 수 있고 재활용을 넘어 수출까지 가능합니다.

1. 정책명

‘착한 소비, 자원 순환을 위한 아이스팩 수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인터넷 판매가 늘어나면서 택배 등으로 인한 아이스팩의 사용량도 증가했습니다. 대개 아이스팩을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녹여서 아이스팩의 내용물을 버거나 싱크대로 흘려보내는데, 이는 수질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도 차원에서 아이스팩 수거함을 설치하거나, 아파트 단지에 아이스팩 수거함을 두어 1차적으로 수거하고, 이를 다시 유통하는 업체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사업 내용

- 동사무소에 아이스팩 수거함 설치
-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수거함 설치
- 수거된 아이스팩을 생산 또는 유통 업체에 제공하기

4. 기대 효과

아이스팩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회수하여 업체에 제공하면 자원도 순환이 되고 좋을 것 같습니다.

1. 정책명

‘제품의 전주기성 평가 시스템 설립 및 도입 & 친환경 인증 업체에 인센티브 제공하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요즘 친환경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는 있지만, 그것이 정말로 친환경 제품으로 환경에 도움이 되는지 혹은 에너지가 얼마나 절감되는지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현재 친환경 마크들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 제품을 가이드하고 있으나, 소재에 국한하거나, 단편적인 수치들을 증거로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제품의 친환경성을 언급할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고려해야 하고, 제품이 폐기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도 고려하여 친환경성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제품의 전주기성 평가’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종이컵 하나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및 제조에서부터 폐기까지 소비되는 에너지 (예: 물 00리터, 나무00톤, 에너지00원, 폐기비용00원)를 수치화하여 (비유하지만, 식품의 성분 및 함량 표기와 같이)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전반적 정보를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도입하여 우수한 친환경 업체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제조업의 메카인 창원이 친환경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제품의 전주기성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 수급에서부터 제조 그리고 폐기까지 한 제품의 전주기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모여, 수치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를 검증하고 인증할 수 있는 업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잘 알기 쉽게 가시화하는 디자인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인증은 소비자들에게 친환경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를 제공하고, 업체들은 보다 높아진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 제품 개발에 보다 힘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기존의 친환경 인증 마크는 소재나, 에너지 절감 등 단편적인 수치에 치중하여 친환경을 판단하였지만, 본 사업은 제품의 자재 수급, 제조 및 폐기까지의 전주기성을 평가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친환경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업추진 및 방법** : (예를 들면, ISO 인증방법)처럼 제품의 전주기성 파악을 위해서는 이를 위한 인증기관을 설립하거나, 유사 관련 기관에 위임을 하고, 제조에 필요한 공정별 에너지 관련 담당자들을 선임하여, 표기 방법과 규칙 등에 대해 논의하여, 제품 전주기성 시스템을 만든다. 이후, 제품 전주기성을 표기하고자 하는 업체는 이 기관에 문의하여, 함께 친환경 시스템 장비들을 점검하고, 표기하여, 인증을 받는다.

4.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사회 : 정부 및 각 지자체에서는 기후변화와 속출하는 자연재해의 심각성, 쓰레기 대란 등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관련 정책을 보다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보임. 제품의 전 주기성 평가는 소비자들에게는 알권리를 제공하고, 비즈니스 업체들에게는 친환경

경 기술을 발전시킬수 있는 촉매제의 역할을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환경에 해가 되는 제품들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그 반대는 힘을 갖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봄.

경제 : 코로나 바이러스 및 각종 자연재해 등으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제품의 안전 등에 관심이 높아진 소비자들은 최근 친환경제품 소비가 높아지고 있고, 관련 마켓 사이즈도 커지고 있음. 이에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얻음으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만족도도 높일 수 있으며, 관련 친환경 업체들은 비즈니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환경 : 제품의 전주기성 평가는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 및 시의 정책과 소비자의 니즈가 촉매제의 역할을 하면서 비즈니스 업체들 간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관련 경쟁 및 연구가 활발해 짐에 따라 실제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품들이 출시 될 것으로 기대함.

1. 정책명

‘플라스틱 재활용 양에 따라 세금감면 및 현금성 지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프라스틱이 환경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고 함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줄이도록 한다

3. 사업 내용

- 현재 공병 수거시 지급하는 방식을 플라스틱 수거에도 적용
- 분리수거가 잘된 플라스틱 회수시 마일리지 적립 또는 전기세나 수도세와 같은 세금 감면
- 플라스틱 라벨지 제거, 뚜껑을 분리하여 배출 → 무게로 환산하여 계산

4. 기대 효과

함부로 버려지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며 오염으로 인한 처리비용 및 환경개선 비용을 줄이는데 있다

1. 정책명

‘아파트별 분리수거부터 바꾸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환경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려면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모든시민
- 사업방법 : 우유팩 따로 분리, 신문 따로 분리수거

4. 기대 효과

주택에 살때는 주민센터에서 우유팩을 따로 수집해서 휴지로 바꿔졌었는데 아파트에서는 따로 분리수거를 하지않아 종이박스에 같이 버립니다.

조그만 하나부터 바뀌나간다면, 재대로만 재활용을 한다면 환경은 달라질거라 생각합니다.

1. 정책명

‘작은 실천이 환경을 살린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요즘 뉴스를 보면 환경에 대한 말도 많고 쓰레기가 계속 생겨나 쓰레기를 줄이면서 재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3. 사업 내용

저희 아파트만 보더라도 우유팩 같은 걸 따로 분리 배출하거나 아이스팩도 분리를 안합니다. 우유팩을 따로 모을 수 있거나 아이스팩도 따로 모아 분리 배출해서 재활용하면 환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거 같습니다. 먼저 아파트 생활하는 분들이 많으니 아파트마다 열심히 모아오면 종량제봉투나 휴지등으로 교환해주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4. 기대 효과

우유팩은 활용도 높고 아이스팩은 요즘 배달이나 택배량 증가로 재활용 한다면 환경오염을 조금이나 줄이는데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1. 정책명

‘창원시 친환경 마일리지 제도 신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의 대표 공업(제조업)지역인 창원시, 스스로 우리나라의 “환경수도”라고 주장하는 창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무엇보다 친환경제품 관련 사업과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환경수도로써 창원시의 사업 현황은 생태공원 조성, 누비자, 천연가스버스 등 교통수단의 변화,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등이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또다른 소비를 통해 가치 창출을 꾀하기 보다 소비의 결과물이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지속가능한 창원시로 발돋움 하는데 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3. 사업 내용

- 창원시에서 친환경제품 제작업체를 선정하여 “창원시 인증 친환경제품 제작업체” 마크 수여, 해당 업체에 대한 추가 세금 감면(특정 매출 00억 이상의 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로 감면), 창원시 인증 친환경제품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마일리지 제도를 신설(제품 구매시3~5% 정도 적립, 마일리지 10,000원 이상의 경우 온누리or창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 등)
- 친환경제품 제작업체 예시: 생분해 플라스틱 또는 비닐)을 만드는 업체, 또는 HDPE, PLA나 종이를 포장재로 적극 활용한 업체, 제품 용기 재활용이 50%가 넘는 업체 등

4. 기대 효과

또 다른 소비를 통해 가치 창출을 꾀하기 보다 소비의 중간재 또는 결과물이 환원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창원시가 진정한 환경수도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 정책명

1. 재활용 쓰레기의 재활용률을 공개하고
2. 품목별 재활용 분리수거 체계를 만들어 (예:아이스팩, 아이스박스 별도 수거-행정복지센터)
3. 시민대상 자원순환 관련 의식화 교육 및 홍보(재활용 분리 업체 탐방 등)
4. 관내 재활용 관련업체 인센티브 장려 및 지원
5. 분리 배출을 위한 홍보 및 법적 제재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개인의 분리배출은 85% 이상 진행되고 있으나 실제 자원순환시스템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
특히 주택지역의 분리배출 쓰레기 수거 형태를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결과 절대 재활용, 자원순환이 안될것이라 생각 함 왜냐면 배출도 한 봉지, 수거는 일반쓰레기 수거하듯 압축기로 부셔 버리는 현장을 목격함.

3. 사업 내용

- 재활용수거업체 처리 현장 탐방 및 자원순화 전문가 강의 및 워크샵
- 이 후 각 정주지역에서 모니터링 교육을 진행하여 성과 발표
-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4.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 지자체의 동 단위 자원순환 시스템 마련

※ 그 외 기대효과 등

- 덜 쓰고 잘 버리는 삶을 지향
- 실제 소비로 인한 오염도의 체감
- 소비 보다는 배출에 가치를 가진다.

1. 정책명

‘탈-탄소 버킷챌린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반감을 품은 평범한 시민들에게 탈-탄소가 무엇인지조차도 모른다. 20,30 대들 겨냥으로 하여 카드뉴스를 만들어 각종 플랫폼으로 노출, 창원시에 있는 공기업들은 한번씩 다 돌아가며 탈 탄소화에 대한 영상을 짧게 만들어 시청홈페이지에 공유하는 것은 어떠할까 싶습니다? 지금의 흐름상 지구가 0.5도만 올라가면 우리의 삶은 무너진다는 것을 결합하여 보여주는 걸로 창원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부터 물결을 타고 올라가면 대한민국 자체가 움직이지 않을까 합니다

3. 사업 내용

사업 대상은 공기업 중 4차산업혁명에 신재생에너지파트부터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더욱 좋은 것은 신재생파트의 직원이 석탄쪽 제조업등 적대적인 파트의 사람과 같이 이끌어 나가는 것을 나타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대 효과

환경적으로는 0.5도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왜 신재생에너지가 필요한지 시민들이 알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한 납득이 된 시민들은 그 자리에서 환경을 위해 무엇인가를 만들고 탄소세를 추진하자는 목소리를 낼 수 도 있다. 더불어 어떠한 일자리가 있는지 국민들도 같이 알아갈수 있기에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시간으로 변하는 것 만큼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정책명

‘non 플라스틱 어드벤처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썩지도 없어지지도 않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증가로 해양오염은 물론 지구 전체가 오염되고 있음

3. 사업 내용

생활용품, 식품 패키지에 쓰이는 플라스틱을 10%~20%를 줄이면 그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금을 면제해줌

4. 기대 효과

우리가 쓰는 생활용품 식품 패키지들 같은 경우는 이미 공정되어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 그러므로 공급하는 생산자가 플라스틱 패키지를 줄인다면 자연스럽게 소비자도 플라스틱 사용이 줄며, 플라스틱 패키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품개발도 더 빨리 이뤄 질 수 있다. 기업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저렴하고 간단한 플라스틱 패키지가 더 편할 수 있으나, 대체품개발과 향후 기업의 이익을 위해 플라스틱 패키지를 줄일 수 있을것이다.

1. 정책명

‘대형 마트 음식물 쓰레기 제로 운동’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마트에서 실제로 먹을 수 있는 음식물들이 많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 사용 가치가 떨어지거나 기한이 임박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늘어만 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음식물을 버리지 못하게 법을 만들어 음식물을 필요한 만큼만 팔고 사용이 가능한 음식물은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도록 하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독거 노인, 급식 지원 아동 등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우리 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정부 차원에서 진행을 해서 대형 마트 등에서 시작하고 시작하는 마트에게 지원을 더 많이 해 준다면 전 국가적으로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4. 기대 효과

음식물 쓰레기가 줄어들어 환경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불필요한 낭비가 줄어 사회, 경제적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1. 정책명

'창원시 탄소라벨링 제도 도입과 창원시 탄소라벨 제품 찾기(추적조사)'

(창원시 소매업체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먹거리 공급에 어떤 역할을 담당하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본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1) 창원시는 2015년부터 하수처리장, 정수장, 매립장 소각장 등 32개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해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중이다. 2030 스마트 기후환경도시 창원 조성을 위해 탄소거래배출권 거래제와 함께 창원시가 인증하는 탄소라벨링 제품을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창원시만의 탄소라벨링을 부여하고 우선구매를 통해 지속가능할 수 있게 한다.
- 2) 소매업체는 먹거리공급에 핵심적인 기능이 접목되어 집중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창원시는 소매업체가 어떤 형태가 있으면 어떻게 먹거리 공급을 하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소매업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창원시의 역할도 알아본다.

3. 사업 내용

- 1) 대상 : 농산물, 수산물 등 창원에서 생산되는 제품
- 2) 방법 : 시민모니터링으로 탄소배출제로 제품 찾기 및 선정
- 3) 혜택 : 창원탄소라벨링 부여하고 소매업체 내 판매코너 마련

4. 기대 효과

- 1) 탄소라벨링제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성장
- 2) 창원시민에게 보다 안정하고 환경적인 제품(농산물, 수산물등)을 공급

1. 정책명

‘배달 음식 이용시 일회용품 사용 금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는 플라스틱으로 시작해 플라스틱으로 끝나는 삶을 살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배달음식 급증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갈 곳 잃은 쓰레기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줄일 수 있는 플라스틱은 줄여야 한다.

3. 사업 내용

배달 음식 시켜먹을 경우 선택사항에 “일회용품 필요없어요”라고 적혀있다. 배달 음식을 시킬 경우 일회용품 구성에서 일회용품 기본 제공을 삭제하고 필요한 경우만 일회용품을 요청하게끔 변화가 필요. 일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기본 적립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정책.

4. 기대 효과

일회용품 사용 감소

1. 정책명

‘창원시의 분리수거 정책의 고민’

(창원시에는 많은 아파트가 건립되어 각 아파트마다 분리수거를 통한 친환경 운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대형 아파트를 제외하고 일반 빌라나 가정주택 등에서는 창원시에서 요구하는 분리수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통한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 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자치회를 통해 지역의 분리수거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책을 만들어 친환경 정책으로 추진하는 분리수거가 제대로 실효성이 있도록 했으면 한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황]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

[문제점]

상업적인 공간이나 이시간대에 배출하지 못하는 주택 등에서는 배출시간 이전에 배출을 할 수 밖에 없어서 야생동물(고양이, 까마귀 등)에 의하여 훼손되어 도로변에 쓰레기가 나뒹구는 현상이 발생함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재활용품이나 생활쓰레기를 배출시간에 맞출 수 없는 개인 또는 사무실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지역마다 자체적인 배출시간의 다양성을 반영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일부에 대한 배려가 시정책 수립에 쉽지는 않겠지만..... 다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니면 배출시간을 동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야생동물의 쓰레기봉투 훼손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4.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환경적으로 분리수거는 꼭 필요한 것이며 지속적인 홍보와 각 개인의 실천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일부 불가피한 분리수거 배출시간의 문제와 야생동물의 훼손문제는 고민이 필요 할 것 같다.

1. 정책명

‘창원시 기후위기 체험관을 만들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기후위기에 따른 비상상황을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단체의 기자회견, 단체장의 선언문만으로 위기의식을 갖고 기후행동을 실천할 수 없다.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설립이 요구된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10대를 중심으로 창원시민 대상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수원에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있다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창원은 산과 바다, 공단과 농촌이 함께 공존한다.

시뮬레이션으로 해수면 상승, 지구온도 상승, 열대성 장마 등을 적용시켜 해당 시민이 살고있는 곳 (아파트, 동네)의 변화현상을 보여준다. 이후 이런 기후위기는 나로부터 작은 실천이 막을 수 있는 것도 보여주자. 즉 1인 1년 일회용사용량, 이산화탄소배출량을 계산하여 재활용 등을 실천 하면 창원시민 100만명의 실천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도 보여주자.

4.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 체험관이라 초기자본이 많이 들겠지만 지속가능한 체험관으로 이용가능하다.

※ 그 외 기대효과 등 : 청소년과 시민들 뿐만아니라 어린이, 유아들 환경교육공간으로 쓸 수 있다

1. 정책명

‘집값을 잡아라’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최근 창원시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으며 실거래가가 3~4억 이상 오른 상태로 매매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고 있으며 투기 목적인 아파트 쇼핑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제안합니다.

3. 사업 내용

- ※ 지금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호텔을 개조하여 청년들에게 소정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있는데 현재 청년들의 만족감이 높은 걸로 알고 있음. 이를 활용하여 창원시도 창원시 소재의 호텔을 개조하여 이를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 ※ 임대아파트의 브랜드 네이밍만 들고 입주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돌려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방법도 좋을 것 같습니다.

4. 기대 효과

- ※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자들을 위한 집값이 안정되면 심리적 안정감 고조
- ※ 집값 안정 시 1인가구의 청년비율 증가하고 소비 경제 활성화
- ※ 심리적 안정감 고조, 경제 활성화 시 신혼부부의 출산 가능성 상승

1. 정책명

‘사회적경제와 그린뉴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에는 300개가 넘는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있으나 탈탄소정책을 지지하고,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은 극소수이다.

창원시는 기후위기와 사회적불평등 해결을 미션으로 삼는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이 필요하다.

3. 사업 내용

1. 사업대상 : 환경문제와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

2.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3. 사업추진 및 방법

- 스마트그린산단 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 그린뉴딜 도시재생사업에 사회적경제기업 우선 참여(가산점 부여 등)

4. 기대 효과

- 창원시의 그린뉴딜 성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라는 두가지 정책을 동시에 달성
- 기업의 사회적공헌을 통해 지역의 사회적문제 해결
- 사회적 경제기업의 양적·질적 성장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 정책명

‘창원 소상공인업체 이용 착한 마일리지 제도’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로 다들 어렵고 힘들지만, 무엇보다 소상공인 업체의 타격이 큰데, 창원 내 소상공인 업체 이용시마다 마일리지를 부여함으로써 소상공인도 살리고 창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준다.

3. 사업 내용

- 마일리지 적립 어플 제작 (예: 창원사랑 착한마일리지)
- 어플을 통해, 소상공인 업체 이용할때마다 마일리지를 부여 (5~10%)
-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사용
- 소득공제 혜택 부여

4. 기대 효과

- 소상공인 매출 증대
- 창원시민 소비 진작
-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1. 정책명

‘푸드트럭의 거리 지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 관광지에 특별한 먹거리가 부족,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먹방 콘텐츠가 늘어남에 따라 단지 특색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하여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일이 많아졌다.

창원의 삼귀동을 예로 들면 푸드트럭을 찾기 위해 방문하는 청년들이 많아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다.

3. 사업 내용

푸드트럭, 노점의 허가 기준을 낮춰 불법 영업을 막고 지정된 일정 구역으로 이동하게끔 하여 소상공인을 살리고 위생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4. 기대 효과

해당 지역의 관광지화, 지역 시민에게 먹거리와 볼거리 제공, 서민 경제 활성화 유도, 청년 창업자의 진출을 도움

1. 정책명

‘핑먹고 알먹고’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요즘 창원사랑상품권이 활성화 되고 있는데 관련해서 사용처가 음식점, 전통시장, 슈퍼마켓 등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용처를 조금 늘리고 상품권이 카드화 되면 더 좋은 정책이 될 것 같습니다.

3. 사업 내용

소상공인들이 창원사랑 상품권으로 인해 매출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금보다는 카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많을 것이고 현금, 카드가 없어도 휴대폰으로 페이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권을 만드는 비용을 줄이면서 카드로 연결 한다면 더 나은 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4. 기대 효과

상품권을 만드는 비용을 절감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카드에 연결이 된다면 조금 더 편리한 소비가 가능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가능할 것입니다.

1. 정책명

‘지역 젊은 인재 교육 및 양성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취업트랙 조성’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출신 대학생들이 졸업후 수도권 취업을 위해 지역을 이탈하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2. 대학졸업후 지역사회 및 창원소재 국가공단에 있는 기업체 취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3. 지역사회 및 지역기업에 취업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환경과 터전을 조성 및 구축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3. 사업 내용

1. 지역출신 취업예정자 및 취업준비생들에 대상으로 취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현장실습 및 예비 취업준비생 제도를 구축하여 실행
2. 대학에서 실시중인 현장실습 교육프로그램으 확대하는 방안으로 지역 기업체와 대학들간의 취업트랙을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지자체, 기업체 및 대학 공동 MOU 체결.
3. 대학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진행후 학생들 기업체로 취업연계 프로그램 구축, 취업준비생들도 본인 적성과 특기 맞는 취업교육프로그램 이수후 해당 기업체로 취업연계 프로그램 진행

4. 기대 효과

1. 지역 출신 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지역사회와 지역 기업체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지속 가능한 지방자치정부가 존립할 수 있다.
2. 상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려면, 지자체, 지역 기업체, 대학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각자가 소유하고 있는 물적, 인적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다.
3. 젊은 인재들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함으로써 지방경제, 사회, 문화 등 여러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으며, 나아가서 인구절벽의 출산문제까지 연계해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수립할 수 있다.

1. 정책명

‘창원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리마켓’

(창원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리마켓을 제시합니다. 셀러를 모집하여 온라인 사이트(혹은 앱)에 올리고, 인터넷 쇼핑하듯이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수익금은 기부(추후 인건비 사용)나 포인트로 적립합니다. 이는 다른 물건을 구입할 때 배송비로 사용하거나 누비전 혹은 경남사랑 상품권으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당근마켓, 혹은 아름다운 가게 등 쓰지 않는 물건을 온라인에서 판매하거나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하여 재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당근마켓은 물건을 파는 곳까지 직접 가야하고, 아름다운 가게 방문은 번거롭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면대면 접촉, 가게 방문은 더 망설여집니다.

3. 사업 내용

1. 사업대상 : 창원 시민
2. 타시도와 차별점 : 이미 많은 지자체에서 아름다운 가게 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면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접 가게 방문이 아닌 온라인 쇼핑 하듯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3. 세부사항 : 셀러들이 자신의 물건 사진, 소개글을 미리 온라인 사이트에 올립니다. 지자체에서 일괄수거 및 검수해서 팔 수 있는 물건만 온라인에 게시합니다. 소비자들은 온라인 쇼핑하듯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합니다. 이 때 물건은 지자체에서 배송 해 줍니다. 셀러들의 수익금은 기부(인건비)나 포인트로 적립하여 배송비 혹은 누비전으로 전환 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4. 기대 효과

1. 일자리 창출 : 셀러들의 물건을 일괄 수거하고, 온라인 물건을 직접 배송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라 배송거리도 짧고, 택배보다 좀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2. 환경 보호 : 아직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다시 사용함으로써 지구를 지킬 수 있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 수익금을 누비전 혹은 경남사랑 상품권으로 변환해서 사용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습니다.

1. 정책명

‘소규모 로컬 푸드 판매장 마련, 로컬푸드 음식점 운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생산자와 판매자를 직접 이어주는 로컬푸드 판매장이 많지 않음.
소규모라도 생산자와 판매자를 직접 이어주는 장소가 곳곳에 필요함.
로컬푸드 음식점을 운영하여 홍보 및 수익 창출하여 로컬푸드 관련 정책에 사용

3. 사업 내용

사업대상 : 소규모 생산자, 다수의 시민
대규모 매장보다는 소규모로 운영할 수 있는 매장을 곳곳에 마련하여 접근을 용이하게 함.
로컬푸드만을 이용한 식당을 운영하여, 로컬푸드 홍보 및 관련 정책 시행의 수입원으로 이용.

4. 기대 효과

- 이동거리가 짧아 탄소발자국을 줄여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됨.
- 소규모 생산자들의 소득 증대
- 시민들은 신선한 식재료를 중간 마진없이 이용할 수 있어 경제적, 건강 증진적 측면에서 효과

1. 정책명

‘Fantastic CHANGWON’

(관광도시 창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및 로고타이틀로 Fantastic CHANGWON 으로 했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예전 창원시는 공업도시, 계획도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공단을 형성하여 지방자치 중3개의 시가 합쳐져 광역시 규모의 시를 형성하여 창원시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산업 발전이 감소되고 있는 시점이며 창원시에서도 관광도시로 변화하려는 움직임들을 보면서 시설 1개 설립하고 관광을 외치는 것이 아닌 창원으로 사람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관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창원 귀산/가포~광암해수욕장/진해 솔라타워~웅동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귀산, 광암해수욕장, 솔라타워 등 볼거리 즐길거리 부족으로 관광도시로 하기엔 부족하다는 인식이 크며, 창원투어버스의 경우에도 창원의 대표적 명소를 가지만 실제 탑승하는 사람은 미비함.

‘귀산의 경우 개인 사업자로 한 카페거리, 푸드트럭 등 형성되어 있고, 낚시를 하고, 가족 및 연인과 바람의 쐬러 다니나, 공공시설(공원,건축물,레저프로그램)등 부족으로 잠시 왔다가는 코스로 인식하여 공공시설 또는 문화적인 요소 개발이 필요합니다.

예로 들어, 부산에 광안대교를 장소로한 나이트런 등 나이키,아디다스 등 각종 기업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창원시 또한 마창대교가 있으며 그 밑으로는 귀산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을 전국적인 나이트런을 기획하고 스포츠기업과 브랜드화하여 문화적으로 커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암해수욕장의 경우 근처 횡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처에 편의점, 레저 등의 문화시설은 너무 없는 형편임, 사람들이 모이기 위해서는 즐길 수 있는 거리가 필요함, 광암해수욕장을 좀 더 크게 할 수 있는 방안과 그게 아니라면 해수욕장 뒤편을 오토캠핑장 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진해 솔라타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솔라타워만 있고 근처는 횡함, 그릴바에 민간업자를 유치하여 개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임대 또는 경매방식으로 주어 발전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현재 각종 지어져 있는 시설에서 꾸준히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원을 활용하여 투자비용은 적으나 가시적이고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여건 형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4. 기대 효과

위 세가지 모두 관광객 유치 및 문화 형성이라는 틀을 가지고 있으며 꾸준히 현재의 우리가 발전시킨 것을 토대로 확대해 나간다면 관광객들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정책명

‘로컬푸드 개발을 위한 농업지역 공동체’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조공업 위주 산업으로 도심공동화가 될 여지는 있다.
로컬푸드 농업지역 공동체를 구성하여, 일자리 창출, 먹거리 창출, 관광 자원 개발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사업 내용

지역농민(생산자) 뿐 아니라, 지역 청년(판매, 유통, 홍보, 생산)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강릉커피의 사례 뿐 아니라 제주 해녀의 사례도 로컬 푸드로 알려져 있다.
창원쌀, 창원감을 시작으로 다양한 상품개발을 하고 참여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4. 기대 효과

창원의 중심가가 아닌 농촌, 어촌 지역을 토대로 시골지역을 활기롭게 할수 있으며, 취업을 위해 수도권으로만 가는 청년인구 유출을 지역자원을 통해 막을 수 있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의 좋은 사례를 창원으로부터 시작한다.

1. 정책명

‘지구화 추세 속에서 지속가능한 먹거리 생산공급 추진 대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식품안전, 환경, 생산자 권익 보호
- 생산자의 식량주권 실현 및 농업 시민권 강화
- 소비자들에 대한 식량주권, 세계식량위기 등에 인식도 제고

3. 사업 내용

- 공동체 지원농업(CSA) 활성화 추진 - 특정한 농장을 지원하는 개인(소비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와 농장이 서로 계약을 맺고 농사의 부담과 이익을 나눔으로써 공동체의 농장이 되는 개념(소비자에 합리적인 비용 산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거래 비용 및 마케팅 비용 절감 등)
- 지역 공동체 농장 조성 및 참여, 학습, 실천 운동 전개(예 : 영국 스트라우드 참조)
- 먹거리 관련 국내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한 소비자 인식도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추진

4. 기대 효과

- 소비자에 합리적인 비용 산출,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 절감, 거래 비용 및 마케팅 비용 절감 등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기후 변화와 에너지, 천연자원 보호 및 환경 개선, 지속가능한 공동체 만들기, 지구의 생태적 한계에 대한 인식 제고 등

1. 정책명

‘창원 부산 경전철 사업활성화’

(지하철도와 버스의 단점을 보완한 대중교통 수단인 경전철의 설치로 사회, 경제적 부분 등 제반 분야에 있어서의 발전을 도모)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지속적인 인구감소 현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
- 인근대도시인 부산과의 유동인구 활성화
- 창원 스타필드 사업 등과 연계하여 경전철 설치시 접근성을 높여 쇼핑사업 확대화 가능
- 부산의 기업과 창원의 대기업간 기술교류 확대 및 경제, 쇼핑, 문화 등 교류활발

3. 사업 내용

- 창원시민 및 인근지역 시민 대상으로 이용가능한 사업으로 현재 개통되어 있는 김해-부산 노선에 이어 창원까지 연결시 도시발전 등 도모가능한 사업.

4. 기대 효과

- 광역시에 버금가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으로 인한 지속적인 인구 감소방지 및 인구 증가요소 확보
- 교통정체 완화 및 이동시간 단축으로 편리성 도모
- 인근 대도시와의 경제적 문화 쇼핑 등의 교류 확대로 다시 한 번 경남 최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을 마련가능

1. 정책명

‘진해 웅동 지구에서 현재 골프장외에 비어있는 유휴공간에 대규모 캠핑장 운영을 통한 수익 활성화 및 유휴 부지 이용성 증대를 통한 향후 개발의 방향 제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진해 웅동지역에 골프장을 제외한 공간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유휴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정식 사업이 확정될 때까지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캠핑공간으로 활용하여 많은 창원시민들에게 휴식의 공간뿐만 아니라 캠핑을 즐겨하는 캠핑족들이 창원을 찾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러한 캠핑족들이 많아지고 이 곳을 찾는 시민들이 늘어남으로써 유휴공간에 대한 투자처로서의 매력의 부각될 것으로 예상.

3. 사업 내용

- ※ 캠핑 공간, 차박 공간, 카라반의 공간등의 다양한 캠핑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캠핑 수요 충족
- ※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와 사설 업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고 있지만 공간이 협소하여 몇 주전에 예약이 완료됨으로 충분한 공간 확보 가능
- ※ 넓은 부지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 제공(연극,콘서트,경연대회) 및 창원지역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운영을 통한 캠핑 먹거리 제공 및 지역 농수산물 홍보 효과
- ※ 인근 솔라타워 레저활동, 마리나 항만, 인근 어촌계와 연계한 바다낚시 등의 인근 지역의 경제 활동과 연계

4. 기대 효과

1. 유휴공간의 캠핑공간 활용을 통한 유휴부지의 수익 및 캠핑에 대한 수요 충족
2. 웅동지구 불법주차한 차박족들의 수요 전환
3. 인근 어촌의 바다낚시 및 해양 스포츠사업과 연계하여 항만도시 창원의 이미지 부각
4. 현재 해당 지자체 및 사설 캠핑 장소의 부족에 따른 예약 불가에 따른

1. 정책명

‘노후화된 아파트와 지역을 재건축사업을 원활히 하여 질 좋은 주거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세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아파트 값이 대체적으로 비싸며 품질 좋고 가격 좋은[가성비 좋은] 아파트를 구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젊은 신혼부부들이 인근의 김해시나 창원시의 외곽 지역에서 거주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다른 도시로의 인구 유출도 많아지고 출퇴근 비용 증가하고 교통문제도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합니다.

3. 사업 내용

4. 기대 효과

인구유출방지. 교통비 감소, 도시의 공[空]동화 현상 방지

1. 정책명

‘환경정책을 알릴 수 있는 강의나 책들을 더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 사회의 미래 초등학생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좀 더 자세하고 뜻 깊게 알려주고 싶은데 평소에는 그런 책들이나 강연들을 쉽게 접하지 못한다. 그러니 아이들에게 환경에 중요성과 우리가 환경을 위해 해야할 노력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나 책들을 많이 만들면 좋겠다.

3. 사업 내용

환경이 파괴된 곳에 가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을 각인 시켜주는 캠프 등을 만들면 좋겠다. 어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려 줄수 있다.

4. 기대 효과

어린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면 사회 또는 경제에서 환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환경을 좀 더 알고 싶다면 그와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다. 또 우리의 환경 심각성을 확실하게 알려줌으로 사람들이 환경에 더 관심을 가지고 환경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1. 정책명

‘지역사회를 위한 환경 교육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환경수도를 자처한 창원시이지만 지역사회로 눈을 돌려보면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창원시의 주축이 되는 시민들이 환경을 어렵게 생각하고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중심의 환경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환경을 생각하는 시민사회를 키워야 합니다.

3. 사업 내용

- 지역(동 단위)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 지역 환경단체와 협업으로 강사 초대, 프로그램 협력 등의 효과
- 주남저수지, 마산만 등 창원시가 목도하고 있는 현안사업 정보를 시민사회와 공유
- 교육프로그램으로 끝나지 않고 창원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환경정책과 연계

4. 기대 효과

- 환경수도 창원의 정체성과 당위성 확보
- 시민사회의 환경 친화력의 증진은 창원시의 환경정책 수용력 확대로 이어짐
- 창원시가 가진 자연환경 가치를 시민사회가 인정하고 보호, 경제활동(소비) 확대

1. 정책명

‘창원시 분리수거 제대로 알기 과정’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안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분리배출 하는 방법을 아는 것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분리배출을 알고 있지도 않고 가르쳐 주는 곳도 없다.
제대로 된 분리배출이 어떤 것인지 시에서 알려준다면 환경도시로써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3. 사업 내용

전 시민 대상

-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민들은 공공기관이나 영상 등으로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채널이 있으면 좋겠다.
- 플라스틱을 배출하더라도 패트, 플라스틱, PVC 등 여러 가지 분리배출을 알려준다. 플라스틱 음료병일 때, 겉에 붙은 비닐을 제거하고 뚜껑과 병목에 있는 고리까지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그런 식으로 비닐과 플라스틱, 캔과 고철, 알루미늄 등 제대로 분리배출 방법을 가르쳐 주는 평생 교육이 필요하다.

4. 기대 효과

분리배출 교육이 실시된다면 제대로 분리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 많아져 환경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교육이 정착이 된다면 환경도시 창원의 이미지도 더 강화될 것이고, 그런 교육이 전 국민에게 시행된다면 경제적 효과 및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1. 정책명

‘창원형 탄소제로 교육센터 운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창원시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 스마트 기후환경 도시”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특히, 건축 부분에서의 실천이 매우 중요한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자신의 주택에서 실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다. 제로에너지 주택은 일반 주택보다 건축비가 많이 든다. 따라서 이를 홍보하고, 인식을 증진하는, 또한 함께 참여하고, 직접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여, 실천할 수 있게 하는 ‘리빙 랩(Lab)’ 기능의, 모델하우스 같은 탄소제로 교육센터가 각 구청별로 필요하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창원시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대부분의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이 1000억대 이상의 많은 예산을 들여 지어진 경우가 많다. 내용도 홍보성, 전시물 위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일단 시민들이 실행하기에는 거리감이 있다. 따라서 일반 주택, 카페 형식의 소규모의 “창원형 탄소제로 교육센터”를 운영 함으로서 시민들의 삶 가까이 다가가는 교육 진행
- 각 구청별로 일반 주택을 모델로 한 “창원형 탄소제로 교육센터” 운영

4. 기대 효과

일반주택을 모델로 만든 “탄소제로 교육센터”를 통해 기후위기와 각 구청별로 시민들의 생활 가까운 곳에서 운영함으로서 친환경 주택, 탄소제로 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 정책명

‘그린뉴딜의 교육 확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재도 각급학교 등에서 기후변화에 대해 교육실시를 하고있는 중으로 알고 있음
- 전 국민으로 교육 확장할 필요 있음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교육강사 배출
- 교육강사 대상은 현 정부정책 중의 ‘신중년’ 대상으로 강사교육 후 일정 자격 부여
- 사업 실시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면 별도예산 번거로움 해소 예상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 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타 시도 유사사례 등 조사 못하였음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정책 당국자가 검토하여 실현 가능성 파악하시기 바람

4. 기대 효과

- 효과 크다고 생각 함

1. 정책명

‘나도 이제부터 세계시민입니다.’

(초,중등을 대상으로 한달에 한번 시민이 알아야하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알려주는 영상을 보여주고 교육해주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저도 이번에 이 책을 통해서 올바른 시민으로써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봐야 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스스로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생때부터 환경이나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알고 제대로 생각해 보고 작은 실천이라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사업 내용

초,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많은 것에 대해 시민으로써 알아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달에 한번 학생들에게 영상으로 수업을 해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4. 기대 효과

예전부터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있어서 학생들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식을 알고 있다면 학생들이 세계를 무대로 해서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또 환경을 생각해서 지구를 생각해서 우리나라를 생각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될거라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워야 어른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질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정책명

‘작은도서관 확대, 작은도서관 역할 확대’

통합 창원시의 취지에 맞게 창원에만 집중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을 마산과 창원에도 만들어 가는 것과 작은도서관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을 확대하여 창원시민들이 문화 만족감을 느껴 통합 창원시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의 작은 도서관은 다른 도시에 비해 많다. 그렇지만 도심에 집중되어 있다. 통합된 마산과 진해는 거의 전무한 것이 현실이다. 예산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마산과 진해는 새로 만들지 않고 있다. 통합의 취지가 무색하게 하는 것이 현실이다. 마산과 진해에 창원과 같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문화적인 소외를 벗어나서 통합 창원시민으로 자부심을 가질 것이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주요 수혜자 : 마산, 진해 시민
- 수혜내용 : 책, 평생학습프로그램, 지역문화참여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타시도는 작은도서관을 정책적으로 만들어가지 않고 만들지도 않으나 창원시는 선도적으로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의 사업을 추진, 통합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마산과 진해에 설치함으로써 통합의 기능을 확대 필요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마산과 진해에 작은도서관을 설치할 공간 파악, 시설비, 운영주체 등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 배치를 적절하게 한다면 1~2년안에 추진 가능하다고 본다.

4.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 정책추진을 위한 시민들의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는 공간, 민주주의 학습 공간으로 기능할 것임.

※ 그 외 기대효과 등 : 지역적인 문화도시의 균형을 갖추므로써 통합 창원시민으로 자부심이 향상될 수 있음.

1. 정책명

‘직장인의 이중생활’

(맡겨진 업무에서 벗어나 퇴근 후엔 즐겁게 내가 좋아하고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주민센터나 공공도서관을 활용한 여러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나 대부분 직장인은 이용할 수 없는 시간대에 구성되어있고, 저녁에 개설되는 과목들은 운동쪽에 치우쳐 있다. 창원도서관에 그나마 오후 프로그램이 개설 되어있기는 하나 인원수 제한이 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사람들이 무로나 적은 돈으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가 많고, 직장다니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취미 생활을 하기위해 알아보면 개인적으로 학원 등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데 직장인 취미라는 말이 들어가면 가격이 어마어마하여 엄두도 못내는게 현실이다.

젓바퀴 돌 듯 직장생활만 하다 나이 들어 퇴직하면 할 줄 아는게 없어 막막한데. 공공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저녁반도 활성화 해준다면 일하는 사람들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고 은퇴 후에는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파악해 제2의 인생을 사는 것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3. 사업 내용

※ 직장인 / 개인 취미 생활로 삶의 질 향상, 은퇴 후 삶 대비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직장인을 위한 저녁 취미프로그램 활성화)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공공도서관이나 주민센터를 활용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이 개설되어있는데 저녁(직장인 퇴근 후 할수 있는 시간 대)반도 많이 개설하여 활성화한다면 직장인들에게도 혜택이 균등하게 돌아가고, 삶을 행복하게 영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강사도 신청받아 뽑으면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배우는 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4. 기대 효과

※ 사회적인 교류를 이끌 수 있는 장,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는 직장인들에게도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균등한 기회 및 환경 조성, 은퇴후 삶 설계에도 도움

1. 정책명

‘반려동물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창원 만들기’

- 반려동물 시설 증축 (유기동물 보호소 열악한 시설 재정비)
- 동물병원 (기본진료비 4종목 20가지 외)수술 진료비 표시
- 동물병원 진료비 부가세 10% 사업주가 부담하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에 반려견이 많은 만큼 이런 시설 증축 필요. (교육장, 미용·애견카페, 유기동물 입양센터)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정비 및 인력 충원 (인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동물관련 모든 곳에 부가세 10%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서비스의 질과 양은 그대로임)

3. 사업 내용

창원에 반려견이 많은 만큼 이런 시설 증축 필요. (교육장, 미용·애견카페, 유기동물 입양센터)
유기동물 보호소 시설 정비 및 인력 충원 (인력이 부족해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동물관련 모든 곳에 부가세 10%는 시민들이 부담하고 있음. (서비스의 질과 양은 그대로임)

4. 기대 효과

창원시 3만 가구에 반려동물만 3만9천마리 임. 증축으로 인해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즐기는 공간
이 생기며 시에 발전이 될 것 임.

타지역에서도 와서 관광 효과 및 수익 창출이 될 것으로 기대됨. 보호소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
생함. 인원도 늘리고 유기동물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시설 재정비 필요. 입양 문의도 많을 것
이고 유기동물의 수가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됨.

1. 정책명

‘중장년층을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활성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중장년층 1인 동거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은 비만이나 흡연처럼 잘 알려진 유해요소만큼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끼친다고 한다. 책에서는 사회적 인프라 구축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에 공공 도서관은 모든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누구나 방문하기에 무리없는 공간이다. 도서관 프로그램 확충과 더불어 다양한 홍보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중장년층 대상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다양한 계층에 대한 프로그램 제공과 더불어 오후 프로그램 활성화

- 현재 도서관 프로그램을 보면 대다수 유아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진행 시간이 평일 낮에 집중되어 있다. 경제활동을 하는 1인 중장년층에게 참여를 독려할 수 있게 퇴근 이후 프로그램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에 따름 홍보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중장년층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며 고립되지 않게끔 창원시 전체적인 분위기가 퇴근 이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4. 기대 효과

※ 중장년층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여 고독사와 같은 사회적 고립 예방.

1. 정책명

‘니캉내캉 우리함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지속적으로 아파트 대단지가 생김으로 인해 아파트와 한 마을이 자매결연을 맺음으로 아파트의 입주민들의 먹거리가 안전하고 마을의 생산 매출이 증대 및 안정화 됨을 목표로 한다.

3. 사업 내용

- ※ 입주민 : 안전(신선)한 먹거리, 마을 생산자 : 매출 증대 및 계획적인 생산
-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생협 등과 달리 그 지역의 이웃마을과 계약
-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아파트 부녀회 혹은 입주자 대표회와 생산마을의 계약을 통해 주 1회 지속적으로 공동구매 진행

4. 기대 효과

-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 입주민은 신선한 제품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생산자는 매출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고 이동수단으로 인한 탄소발자국은 확연히 줄어든 것이다.
- ※ 그 외 기대효과 등

1. 정책명

‘창원시 온라인 먹거리 꾸러미 장터 개설’
‘지속가능한 건강식단 모니터링 및 캠페인 활동’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시민사회 조직과 함께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소비를 장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기농이나 로컬푸드의 소비문화는 소비자의 건강한 생활과 직접 연결된 부분이 되어있음으로 인식이나 실천도 높다. 하지만 먹거리의 지구화와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로컬푸드의 꾸러미사업 등의 소비자중심의 먹거리운동이 활성화되어야한다고 본다.
이에 창원시 창원의 온라인 먹거리 장터를 만들고,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소비를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3. 사업 내용

1. 창원시 온라인 먹거리 꾸러미 장터 개설
 - 창원시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근거리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 및 먹거리 꾸러미 만들기
2. 지속가능한 건강식단 모니터링 및 캠페인 활동
 - 건강한 식단 실천운동으로 각 가정의 1년간 먹거리 모니터단 활동 (영수증 및 사진 증빙)
 - 지속가능한 먹거리운동의 표본사례 발굴
 - 지속가능한 먹거리 가족 선정, 사례 공유

4. 기대 효과

1. 창원시 온라인 먹거리 꾸러미 장터 개설
 -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의 생산물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가정에서 필요한 먹거리꾸러미를 구성하여 소비자에게 제공
2. 지속가능한 건강식단운동을 통해
 -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환경운동 전개
 - 로컬푸드의 필요성 인식으로 지역의 신선한 농산물 이용
 - 가정에서의 먹거리 모니터링으로 식습관 진단
 - 지속가능한 먹거리운동의 모델사례 발굴

1. 정책명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장 설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저는 진해구에 살지만 창원시에 관심이 많아서 항상 홈페이지를 방문합니다. 하지만 축제를 봐도 진해쪽이 배제되어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10주년 행사를 제가 많이 다녔지만. 성산구, 의창구 등을 많이 가지.. 진해는 별로 간 기억이 없네요.. 진해구를 살려주세요.

3. 사업 내용

마을 축제 등(벚꽃 축제 제외)를 정기적인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취학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들과 놀 수 있는 공간이 진해구에 많이 부족합니다.

4. 기대 효과

창원시가 균형 있게 모두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1. 정책명

‘일주일에 한 번 채식데이’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먹거리의 지속가능성을 증진하는 또 하나의 전략이 환경에의 영향이 덜한 식단을 채택하는 것이라고 한다. 일주일에 한번 채식데이 행사 추진을 통해 채식 위주의 재료 할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채식위주의 식단을 섭취할 수 있게 장려

3. 사업 내용

탄소포인트제 가입하여 작년 대비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들었을 경우 캐시백 해준다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식데이를 추진하여 일주일에 한번 채식 위주의 재료 할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이를 구매하여 채식위주의 식단을 인증했을 때 탄소포인트제 적립과 같은 방안 추진.

4. 기대 효과

육류를 지양하고 채식 위주의 식습관 개선으로 지구 지키기에 동참하는 창원시민

1. 정책명

‘로컬푸드 판매소’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전 세계적으로 환경문제가 대두있는 시점에 창원시도 1회용 비닐, 플라스틱 등 줄이기를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마트, 시장에서는 모든 물건을 1회용품에 담아서 판매하고 있음.

창원시가 추가되어 로컬푸드 판매소를 만들어, 누구나 창원시에서 운영하는 로컬푸드 판매소 사용 신청을 하고, 창원시민이 직접 농사짓는 각종 야채등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3. 사업 내용

로컬푸드 판매소에는 1회용품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소비자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용기 및 장바구니를 직접 들고와서 살 수 있도록 하며, 매일 혹은 지정한 요일에 장터를 열고, 장터 오픈 1시간 전 오늘은 판매상품에 대해 홈페이지나, SNS로 미리 공지하여 소비자가 계획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구매자는 리뷰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우수 판매시민에게 창원시에서 소정의 보상을 통해 로컬푸드 소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4. 기대 효과

-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음으로, 환경보호 실현
- 시민이 직접 키운 농작물을 시민이 구매하고, 판매함으로 창원시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1. 정책명

‘더 안전한 누비자 사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남편이 누비자 타고 회사를 출 퇴근 합니다. 창원시의 자량이 누비자 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누비자가 관리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후된 자전거는 과감히 정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장비함을 추가해야 합니다. 자전거는 매우 위험합니다. 하지만 자전거 헬멧 없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 너무 위험 합니다.

3. 사업 내용

누비자 터미널 옆에 안전 장비함을 추가하여 헬멧을 추가하든지 해야 합니다. 아니면 누비자 회원들에게 헬멧을 살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엇 자전거를 타고 다닐때 꼭 헬멧을 쓰라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나 동일하게 사고나면 큰 부상이 일어납니다. 부상을 방지 하기위해서는 안전 장비는 필수로 해야 한다고 창원시에서 홍보를 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사고의 위험도 줄일 수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서 창원시가 안전으로도 시민들에게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인식을 넓힐 수 있습니다.

1. 정책명

‘코로나 비켜~ 시니어 놀이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옛 마산시인 회원구와 합포구는 도시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인인구가 많은 편이다. 한평생 자식 키우고, 경제활동 하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이제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지만 갑자기 닥친 코로나사태로 인해 스스로 고립되어야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젊은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홈트를 하며 건강관리를 하지만 복지관의 건강프로그램도 수강할 수 없는 현 시점에서 노인들에게 신체건강도 지키고 정신적인 우울감도 나눌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던 차에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에 소개된 사례중에 하나인 ‘시니어 놀이터’에 눈이 번쩍 뜨였다.

출산율이 감소하면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 놀이터는 이용률이 적고, 버려진 공간이 되기도 한다. 이런 어린이 놀이터를 시니어놀이터로 바꾸어 운영하면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마산지역 노인계층

※ 사업 내용 : 이용률이 낮은 어린이 놀이터를 리모델링하여 노인의 신체적 기능을 고려한 안전한 운동기구와 놀이기구를 배치하고 네트워크를 위한 공간도 만들어 놓은 시니어 놀이터 개발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창원시에는 어린이 놀이터, 펫빌리지 놀이터는 있지만 노인들을 위한 시니어 놀이터는 없음. 노인들이 안전하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놀이터 건립이 필요함.

4. 기대 효과

각 동네 귀퉁이에는 운동기구들이 있는 작은 체육공원이 있다. 이 곳 이용자들은 대부분 노인계층인데, 노인들에게 맞는 운동시설과 놀이시설을 구비한 놀이터가 있다면 노인들의 신체능력을 골고루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곳에서 네트워크가 활발히 일어남으로써 노인들의 고립과 우울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정책명

‘구도심 주택 옥상을 이용한 도심공동체 재생프로젝트’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 초기 개발되었던 도심단독주택의 옥상엔 생활용 수조가 있지만, 상수도개발로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어졌으며, 세대수에 비해 보유차량이 늘어남으로써 주차공간 부족으로 가구내 정원이나 텃밭으로 이용하던 공간이 주차공간으로 의무화 되면서 주택단지내 녹색공간이 줄어들었다. 이를 해결코자, 주택단지 일부를 시범단지로 구성하여 참여하고자하는 세대원 중 도시농부를 양성하고 이웃과 생명나눔을 통해 로컬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아울러, 1인가구를 위한 도심밥상을 열어 생명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창원시 지역 단독주택 시범단지 선택
- 단독주택 내 세대원 중 1~2명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타시도에서는 유사사례가 없음
- 도시텃밭이나 도시농부 양성은 지속되어 왔으나, 교육기간이나 교육 후 봉사 의무기간이 끝나면 활동 전무함.
- 시범단지를 선정하고 진행한 결과를 토대로 구단위 사업으로 진행 발전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도시농업 권장 제안
(주택옥상녹화, 노인정, 관공서 등의 옥상을 도시텃밭으로 분양)
- 옥상의 텃밭화 --> 생산 --> 유통마켓 마련 또는 마트 냉장고를 샐러드 운영
- 옥상 쿨루프 시공(겨울에 기온이 내려가는 단점을 보완 할 수 있음)
- 거점안의 일반마켓과 원원 할 수 있는 방법 찾기
-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용

4. 기대 효과

- 1가주 세대가 늘어남으로써 한끼 밥상이 절실한 지금 생명밥상 공동체 형성
- 단독주택 옥상텃밭 조성으로 도심내 미세먼지 저감과 이야기꺼리 있는 거리조성
- 도시농부들의 주기적 만남을 통해 공동체 활동이 지속가능하도록 함
- 도시텃밭 활동과 지속적인 만남이 지속가능한발전 아젠다 실천임을 인식 시키는 계기마련

1. 정책명

‘차를 공유하는 카셰어링’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차가 늘어 남에 따라 주차가 경쟁 수준이다. 시청에만 들어가도 주차 공간이 항상 부족하여 세 네 번은 기본적으로 돌아야 주차를 겨우 할 수 있다. 렌트형식으로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끼리 차를 공유하며 주차비용 대신 일정 금액의 비용을 지불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3. 사업 내용

4. 기대 효과

1. 정책명

‘자연, 도시 그리고 시민의 공존.’

1. 창원에는 타도시와는 비교할수 없는 공원이 있지만 몇몇 공원(옹지공원)등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공간 활용이 안되고 있다.
2. 이에 공원을 주제화 하여 시민들이 직접 재배하는 화훼공원, 허브공원, 텃밭공원 등으로 나누어 시민들이 자연과 교류할수 있는 공간으로 만듦과 동시에 서로 교류할수 있는 소통의 터가 될수 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창원에는 각 동마다 평생학습센터와 함께 마을 도서관이 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계층은 대개는 젊은사람이거나 여성이 대다수이다.
2. 현재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 지고 있다. 은퇴하는 남성들이 이용할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너무 여성위주로 되어있어 남성들이 거부해 한다. 이에 공원을 활용하여 원예를 할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3.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신중년 프로그램 (창원시민 50세 이상)
- 사업계획 : 창원에 산재해 있는 공원을 조사하여 활용할수 있는 공간을 조성
신중년들에게 분양. 공원은 주제를 정해 화훼, 허브, 텃밭 등으로 세분화한다. 시민들은 자신이 원하는 분야를 신청하고 시는 이들에게 재배기술을 전달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4. 기대 효과

1. 자연에서 시간을 보냄으로 은퇴후 느낄수 있는 박탈감을 해소한다.
2. 함께 농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고립감을 해소한다.
3. 도시농업을 함으로 자연이 우리삶 가까이에 있음을 인지하고 기후위기, 환경보호에 더 많은 관심을 불러온다.

1. 정책명

‘창원시 협동 조합 - 농산물 직거래 장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많은 재래시장이 있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잘 가지 않는 사람이 많다.
대형마트보다는 싸게, 재래시장보다 접근성이 좋은 장터가 있으면 좋겠다.

3. 사업 내용

전 시민, 특히 젊은 세대가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접근성이 좋은 곳에 창원시만의 농산물 장터를 열면 어떨까요?

매번 창원 실내체육관 앞의 공터 같은 곳에서만 열리는데,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장터가 열린다면, 사람들이 그날에 맞춰 장을 보러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도 평일 낮 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열어 공급자와 소비자가 함께 윈윈하는 시스템이 되면 좋겠습니다.

4. 기대 효과

- 과대포장이 없어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
- 젊은 세대의 시장이용을 도울 수 있다.
-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입하여 가계에 도움을 준다.
- 공급자와 직거래로 연결해주 신선하고 저렴한 좋은 제품을 소비자는 만날 수 있다.

1. 정책명

‘창원시 빈집을 활용한 주민거점공간 및 창업공간 조성 프로젝트’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2017년 6월 ‘창원시 빈집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도내 최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빈집정비사업을 실시 및 확대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 스스로 철거를 유도함으로써 도심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방치된 빈집 부지를 공공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도심 속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한다. 현재 창원 도심의 빈집은 990여 채다. 빈집을 1채 철거하면 100만 원을 지원한다. 빈집을 철거한 부지에 주민이 사용하는 공용주차장이나 정원·텃밭을 조성하면 300만 원을 지원하고 리모델링해 창작 및 주거공간으로 활용하면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마을의 미관을 해치고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빈집을 단순히 철거하는 정책은 다음의 문제를 야기한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철거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그칠 수 있다. 또한 이와 연계된 문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대상자만 혜택을 보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간 방치된 빈집들은 그동안 범죄나 화재, 재난 등에 취약하여 해당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에게 환경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피해를 끼쳐왔다. 따라서 지역사회에 경제적으로 환원될 수 있는 적극적인 활용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빈집 철거를 기다리기보다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민 참여주체의 발굴을 통해 지속 가능 활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빈집 소유자에게는 철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용주차장, 텃밭, 청년들의 창작 및 주거 공간으로 개·보수하여 지역사회 주민들이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유)

창원시의 빈집 관련 정책은 빈집 주인의 철거 신청을 받아 보조금을 지급하는 ‘지원’ 정책에 한정되어 있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철거는 단순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만 그칠 수 있다. 소극적인 보조금 지급 정책에서 벗어나 시민들 스스로가 빈집을 활용하여 창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교육, 자문,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만 있어도 사업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의 경제생활에 도움이 됨은 물론,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미 인천시에서는 ‘빈집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 사업’을 시행하여 이를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인천광역시, LH, 한국감정원 등의 참여 기관과의 협약과 연계를 통해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을 설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 지속가능한 사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창원시에서도 시민들의 아이디어 공모전 시행을 통해 시민 스스로가 구체적인 빈집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창업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정책적으로 실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빈집 활용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도시재생 프로젝트에도 기여할 것이다.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10개 내외 시민참여주체 심사 및 모집
-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시범사업 지원(창업 컨설팅 및 행정 지원, 사업비 지원)
- 지속가능한 사업 방안 모색 및 관리

4. 기대 효과

- 도시 미관, 물리적 환경 개선에 따른 범죄 예방 및 화재 등 재난 감소
 - 공공시설, 편의시설 제공을 통한 주민들의 사회적 소통의 공간 확충(커뮤니티 센터 역할)
 - 거점 공간을 축으로 공동체 형성을 통한 사회적 고립, 소외 감소
 - 창업 연계 및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1. 정책명

‘지속가능성 라벨을 단 번개시장 활성화’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라는 대역재가 발생한 현재 먹거리의 안정성 및 환경적, 사회적 영향에 대해 모두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여 지구화된 먹거리공급이라는 맥락에서 작은 실천을 해보면 어떨까해서 제안하게 되었다.

3. 사업 내용

사업 대상은 창원시 거주하는 시민들 즉 소비자와 유기농 매장, 농민장터, 직구매시스템 같은 유통도 들어갈 것이다. 창원시나 근처 소도시에서 지속가능성이 높은 먹거리에 라벨을 붙여 인증된 매장이거나 번개시장같은 사업을 벌여 그런 먹거리에 추가적인 지불 의사가 있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소매업체는 고급식품에서 마진을 더 많이 남기게 하는 것이다.

4. 기대 효과

상품의 정확한 품질 및 적절한 생산방법을 보증하게 될 것이며 기존과 달리 소비자들의 적극 참여 통해 유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성, 동물복지, 식품안정성을 높이는 쪽으로 점점 실행될 것이다.

1. 정책명

‘옥상 텃밭 가꾸기’

(도시농업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해결하고 도시의 기후변화도 줄여보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대인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건강한 먹거리도 생산하고, 내가 사는 공간에 텃밭을 가꾸고 가족이 먹을 건강한 먹거리를 가족과 함께 재배하며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주택이나 아파트의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고 텃밭상자를 배치해 옥상텃밭 조성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옥상텃밭은 건강한 먹거리도 해결되고 도심의 열섬현상도 막아주고 뜨거운 여름의 열기도 막아주어 에너지 절약에도 일조를 할 것이다.

※ 사업추진 및 방법 : 옥상에 방수처리를 하고 재배상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1가구당 1~2개의 재배상자와 상토 및 모종을 나누어 주고 원하는 가정은 도시농업관리사들이 재배기술을 알려주도록 한다.

4. 기대 효과

-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코로나-19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등
- 옥상의 녹색커튼 효과로 여름 냉방비 절감, 기후변화에 저감에도 효과

1. 정책명

‘로터리북스’

(로터리는 교통이 복잡한 네거리 같은 곳에 교통정리를 위하여 원형으로 만들어 놓은 교차로라는 뜻이 있으며, 우리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책과 문화를 통하여 서로 교류를 하면서 다양한 인생의 방향들을 살아나갈 때 다양한 프로그램의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의 이색 도서관으로는 ‘지혜의 바다’가 있다. 1층에는 동화방, 레고방, 보드방, 상상창작방, 힐링방, 웹툰방이 있으며, 2층에는 많은 도서들과 카페가 있다. 3층은 리딩존으로 자유롭게 원하는 자리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하지만, 그룹으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방이나 디지털시대가 발달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방이 더욱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도서관은 모든 이들에게 안전하고 긍정적이며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시설로, 도시에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시설이다. 맞벌이 부모가 많은 지금 시대에 방과 후에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공부시키거나 너무 많은 디지털문화(방송, 게임)의 노출이 아닌 도서관에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통하여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지식과 지혜를 쌓아갈 수 있는 경험의 장소를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

3. 사업 내용

주요 사업 대상은 청소년과 청년, 부모님, 더 나아가 모든 연령이 될 수 있다. 학교에서 하브루타와 같은 주입식 교육이 아닌 토론 형태의 교육과 문화 교류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도서관이외에도 스터디카페, 만화카페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 하지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연령대와 시간, 공간들이 다소 많지 않은 점이 안타깝다.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큰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작은 도서관들을 더욱 활성화하고 지역주민들이 편히 오고 가면서 문화 활동을 하고 교류하는 공간이 필요하다. 인생의 방향을 함께 살아갈 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갈등을 빚으며 관계에 있어서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 책과 문화를 통하여 심을 얻고 다양한 연령대들이 교류를 하면서 의미있는 관계 형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발전된다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의 이색도서관으로는 국립세종도서관, 서울책보고, 부천만화도서관, 별마당도서관, 안산시스마트도서관, 본오3동 만화작은도서관, 관산도서관 등이 있다.

4. 기대 효과

사회적 인프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교류하는 방식을 결정짓는 물리적 공간 및 조직에 있다. 사람들은 건전한 사회적 인프라를 갖춘 장소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한다. 공동체 형성을 목적으로 이 같은 장소들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꾸준히 반복해서 모여들 때, 특히 즐거운 일을 하며 교류할 때 관계 또한 필연적으로 싹트기 때문이다.

1. 정책명

‘도시에서 벼농사를 지어보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사용율이 떨어지는 공유지의 주차장 대신 정비된 도시텃밭 혹은 마을 논을 만들어 공동체의식 형성에 기여

3. 사업 내용

- 동네(통장)가 중심이 되어 경작할 수 있게 지원
- 통반장 중심으로 주민 60% 이상의 동의서 제출
- 창원시 텃밭지원 사업을 동네에 집중적으로 지원
- 텃밭과 수도작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 기술센터 기술지도
- 관할 어린이집 및 유치원 체험활동 보장
- 노후지역 및 낙후지역, 도심지 중심의 유휴지역 매입을 통해 농사를 짓고 생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켓을 지원

4. 기대 효과

- 마을 공동체 복원
- 도시 슬럼화 방지

1. 정책명

‘아파트 텃밭 만들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8년 도시계획현황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구 92%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파트 위주의 도시에는 서로 다른 성격의 주민들이 어울릴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소속감을 느끼고 공동체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가꾸고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텃밭은 세대를 막론하고 함께 가꿀 수 있으며 이웃들 간 지속적인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3. 사업 내용

사업 대상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들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지속적인 교류를 이끌어내어 공동체 의식이 고양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원시는 현재 쓸모 없는 땅을 텃밭으로 만드는 도시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살고 있는곳과는 조금 떨어져 있고, 만나는 사람들도 동네 주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 텃밭은 근거리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이 것을 계기로 또 다른 방식의 교류도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남는 땅이 있으면, 그 땅에 직접 할 수 도 있지만, 텃밭 화분을 통해 가꿀 수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이 사업을 통하면 우선 수확물에 대한 결과물이 있어 본인이 수확한 것들을 직접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 간 지속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높아진 공동체 의식으로 주인의식이 강화되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줍니다.

1. 정책명

‘자전거와 인도를 분리하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좋은 인도에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습니다. 아이들과 손을 잡고 갈 때 위험한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3. 사업 내용

가까운 거리는 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도 챙기게 됩니다. 좁은 길에 자전거 도로가 있으니까 자전거 도로보다는 차도로 다니게 됩니다. 누비자도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으면 합니다. 동전을 넣어서 사용한다든지 카드가 없어도 바로 사용할 수 있으면 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할 것입니다.

앞으로는 어떤 질병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방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출·퇴근 시 같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차를 줄이는 방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 기대 효과

자동차 줄이기

환경오염이 줄어들게 되면 내일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외국의 사례처럼 차도 옆에 있는 화단에 야채나 과일을 심어서 누구나 편하게 뜯어갈 수 있는 텃밭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정책명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제안합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6살 미만 영유아는 도로 위에서 유아용 카시트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었지만, 대중교통(버스, 택시)에선 아직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거운 카시트를 직접 들고 대중교통을 타기 쉽지 않고, 아직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버스에선 유아용 카시트를 의무적으로 최소 1개 이상 설치하고, 카시트가 하나 장착된 전용 택시를 지정하여, 누구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대상 : 6살 미만 영유아 및 보호자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시행되고 있는 사업 없음

4. 기대 효과

불의의 사고로부터 아이를 보호 할 수 있다. 아이와 함께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 빈도가 늘어나며, 자가용 이용은 감소하여 대기오염이 줄어들 것이다.

1. 정책명

※ 창원시를 공익활동 위한 공동체 모임을 위한 지원정책

※ 동아리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창원시 동아리를 위한 정책은 평생학습관에서 선정하여 1년에 1백만원의 지원금으로 도서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동아리 회원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는 바 현재에도 많은 동아리들이 지원을 하지만 3개시의 통합된 규모에 맞질 않게 규모가 매우 작은 것으로 여겨 집니다. 취미 독서 모임 아니면 자기계발을 위한 모임이든 환경이나 도시발전을 위한 공익의 모임이든 다양한 모임과 동아리들이 서로간 교류를 활발히 하면서 창원시라는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함께 한다면 정책추진의 의미도 있고 지역민들이 지역을 위해 함께 하는 사업이 늘어 남에 따라 지역민으로서의 자긍심은 저절로 커질 것이라고 여겨 집니다. 또한 3개 시의 시민들이 모였지만 창원이라는 공동체로 뭉쳐지기엔 10년이라는 세월이 아직은 부족한 듯 합니다. 함께 서로 교류하는 장을 다양하고 폭 넓게 마산 창원 진해라는 고유의 정서를 배제하지 말고 서로 인정하고 함께 창원이라는 큰 공동체로 엮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 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들의 자연스런 교류와 왕래가 있어야 한다고 여겨 집니다. 서로 함께 나눌 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의 취미, 공동의 정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함께 나눌 장을 시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학생, 청소년, 성인, 시니어)들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자, 창원시 동아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창원시의 다양한 봉사과 참여를 하고 있는 자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기존 평생학습관의 동아리 지원사업을 좀더 확대하거나 동아리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으로 평생학습지원사업과는 차별성을 두어야 함.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사업의 추진방법

기존의 공모방법의 형식을 택하되 한번 선정된 팀은 3년은 지원으로 1년에 한번씩 지원금을 주면서 성과평가를 하고 일정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그다음해에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3년차는 최종 마무리 평가와 함께 자립의 동아리형태로 이끌도록 하며 자립된 동아리에게는 시장님의 표창장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동아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ex) 독서동아리 활동등 총 지원금을 3년에 걸쳐 성과에 따라 지급함.

2021년 1백만원 지원 독서사랑방을 통하여 주민과의 화합과 소통의 장

2022년 1백만원 지원 독서사랑방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독서문화의 밤 행사 추진

2023년 1백만원 지원 독서사랑방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학의 밤과 자원봉사의 밤을 추진

이렇게 지원 받은 단체는 추후 3년동안 지원이 중단되게 함으로써 지원이 골고루 또한 스스로 자립의 동아리로 갈 수 있게 함.

또한 동아리 네트워크를 정기적으로 이끌어 가고자 하며 동아리를 잘 하고 있는 지 모니터링을 해야 함으로 동아리 모니터를 뽑아 서로 유대관계를 높이고 다른 동아리들과의 교류도 활발히 하고자 모니터들의 역할을 줌으로써 동아리활동의 성과를 격려할 수 있으며, 사업이 본래의 취지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 줌으로써 사업의 성과를 가져 올 수 있음.

4. 기대 효과

사업의 효과는 지속가능함으로 이루어짐으로 동아리활동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와 주변 단체에서 잘 이끌어야 함. 그리함으로 사회적 연대감이 생기고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 됨으로써 다양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김.

특히 2030세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대학이나 학교에서 하는 활동이 아니라 사회적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활동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세대간의 격차를 줄이며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특히 창원의 누비자 자전거를 2030세대에서 잘 활용하고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면 지속가능한 미래적 문제를 해결하는 주축으로 이끌 수 있을 거라 여겨짐.

1. 정책명

1. 지역사회 주민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분리배출자판기도입 포인트 적립제(지역민)
2. 지역상권 일회용 없는 마을공동체(소상공인)
3. 에코마을 만들기(건설사)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관심은 가지지만 어떤 방법부터 시작해야하는지 혼자서 한다고 바뀔지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다 그냥 지나쳐버린다. 지자체에서 먼저 정확한 분리 배출 방법과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면 인식변화와 실천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3. 사업 내용

1. 먼저 에코마을(한 아파트나 마을공동체 선정 - 참고로 제가 사는 북면은 처음부터 에코신도시로 시작한 걸로 안다 이런 곳을 활용하거나 지정한다)을 재활용(분리배출) 자판기 보급한다
2. 보급한 자판기를 활용하는 영상이나 그 마을의 환경실천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어 홍보한다
3. 동네나 아파트를 선정 후 전세대 태양광을 설치 가능하게 지원하거나 건설 할 때부터 환경(에코)아파트를 건설하는 건설사에게 혜택을 준다
4. 동네 상권에 일회용 없는 상권(비닐사용하지 않는 상점, 알맹이만 판매하는 상점 등)을 홍보 후 소비자와 중소기업들의 상생 그리고 환경에 관심이 많아지는 요즘 창원을 알리는 홍보 효과 (에코도시 지정이나 마을공동체를 지정 후 그 부근의 상권과 상생)

4. 기대 효과

개인이든 지역상권이든 건설사든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다면 당장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상당히 수고스러운 부분을 습관화하려면 그린 포인트 적립이나 관리비 삭감, 폐이전환 형식으로 보상을 해주어야 조금씩이라도 사람들이 실천을 할 것이다

1. 정책명

‘맞벌이 부부를 위한 스페셜 아이돌봄 서비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에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기업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맞벌이가 많은데 이번 코로나 사태나 만약 아이가 아프거나 하면 와이프랑 하루 걸러 서로 연차를 쓰거나 조퇴를 하거나 외출을 하여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아이를 집에서 돌봅니다. 아무리 긴급보육을 한다고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데 억지로 보낼수 밖에 없고, 결국 돌보아 줄 사람이 없어 타 지방에 계시는 부모님이 오실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이를 더 가지려고 하는 이유도 없어지고, 아이돌봄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3. 사업 내용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부담없이 아이와 함께 보내면서 일도 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재택근무도 권고를 하지만, 재택근무도 유연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아이랑 같이 있는데 근무가 될까요? 아이가 자는 낮 시간이나 부부 중 한명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때 한명은 아이를 돌보고 한명은 일을 할 수 있는 재택근무를 만들어야 합니다. 플렉시블 하도록 재택근무도 8시간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유 출근제 처럼 자유 재택 근무제도 만들어야 합니다.

4. 기대 효과

맞벌이 부부 및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 재택근무로 인하여 효율도 높이고 코로나 감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서 좋습니다.

1. 정책명

'공공건물을 휴일에 활용하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청소년이 갈 곳이 마땅치 않다

주말을 이용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참여시킬 수 있으면 사회성을 키울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겠다.

3. 사업 내용

1. 도서관을 활용하여 스터디 카페와 유사하게 만든다
2. 공공 건물을 이용하여 취미 프로그램을 만든다.
3. 청소년들이 원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준다.

4. 기대 효과

게임을 하는 청소년들이 다같이 모여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즐거운 활력소가 된다. 학교가 아닌 곳에서 자유를 느낄 수 있다.

1. 정책명

‘힘내라 창원 함께 가자 창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경기침체, 가을 겨울에 찾아오는 계절성 우울증에 더하여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사람들의 심리적인 불안과 우울증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급격히 늘어난 지역확진자 수의 증가를 보고 있는 창원시민들 또한 소외감, 무력감, 우울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표출될 출구가 없어 창원시정을 비난하거나 맘카페 등에서 부적절한 방법으로 확진자의 동선을 찾는 등 이상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통을 겪는 것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힘을 모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을 시민들에게 심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 상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청 등 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대처에 대해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창원시민 누구나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전국 : 덕분에 챌린지
- 속초시 : 재난지원금 소비 인증샷 이벤트 - 마스크, 장바구니 제공
- 전라남도 : 코로나19 방역 인증샷 이벤트 - 스타벅스 상품권 제공
- 인천교통공사 : 지하철마스크 인증샷 이벤트 - 신세계상품권 제공
- 은평구청 : 추석 집콕 인증샷 이벤트 - 문화 상품권 제공

2020년 3월 코로나가 인한 제한령이 내려진 이탈리아에서는 시민들이 발코니에 국기를 내걸고 국가를 부르며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외출이 제한된 상황이지만 함께 격려하며 상황이 좋아지기를 바란 시민들의 모습이 그러한 행동으로 표출되었습니다.

타시도에서도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한 각종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를 이겨내는 것은 물론 해당 자치시를 위한 응원이벤트까지 함께 진행하는 곳은 드물었습니다. 서로를 응원했던 이탈리아 시민들처럼 창원시민들도 서로를 응원하고 방역의 주체가 되는 창원시에 대한 믿음을 가져주기를 기대하며 이벤트를 기획하였습니다.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특정요일을 정하여 매주 (한 달에 4회) 인증샷을 찍어 올리는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시민들이 보낸 인증샷을 모아 힘내라 창원, 함께 가자 창원 현수막을 제작하여 시청 앞, 선별 진료소 앞, 마산의료원 앞 등 랜드마크에 게시합니다.

연말, 신년 이벤트로 진행합니다.

이벤트 상품은 지역 중소기업 상품, 지역화폐, 지역농축수산물 등으로 제공하며 가능한 저비용의 상품을 많은 사람에게 제공하여 참여한 사람에게는 소소한 즐거움과 성취감을 누리게 하고 지역의 판매자에게는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합니다.

특히 12월 1월 두 달 동안 진행되어 지는 이벤트 중, 2회 (인증샷 이벤트 예시 1, 2번 참고)는 단지 인증샷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심벌과 깃발을 아파트 베란다, 주택 대문, 상점 전면, 공공시설 정문, 학교 등에 내 걸어 누구나 볼 수 있게 하고 참여를 독려하여 창원시민이 하나됨을 느끼게 하고 소속감을 심어줍니다.

〈인증샷 이벤트 예시〉

1. 창원시 심벌을 그리거나 프린트하여 현관 문 앞, 아파트 출입구, 가게 문 앞등에 게시하고 인증샷
2. 창원시의 포인트 컬러 (파란색, 주황색, 녹색)으로 창의적인 깃발을 만들어 인증샷
3. 벚꽃 사진 - 벚꽃 사진을 찾아보며 창원에도 따스한 봄날이 다시 올 것을 기대하도록 합니다.
4. 빛나는 창원 - 창원의 관광 역사 자연 명소들에서 찍었던 사진 뽐내기 인증을 통하여 코로나 종식을 기원합니다.
5. 맛있는 창원 - 창원의 대표음식들, 맛집, 집밥 인증샷을 통해 자연스럽게 모여 식사하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오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6. 따뜻한 창원 - 창원의 야경 불빛, 가족과 함께 하는 아이의 웃음, 스웨터와 목도리 등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인증샷을 통하여 추운 겨울이지만 시민들의 주변은 따뜻해 지기를 기원합니다.
7. 수고했어 창원 - 퇴근하는 가족, 버스 기사님의 뒷모습, 늦은 저녁 불이 켜진 선별진료소,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 등 오늘의 창원을 있게 하는 창원 시민들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응원합니다.

기타. 창원시 캐릭터의 이름인 피우미의 캘리그래피 인증샷 등

4. 기대 효과

코로나와 경제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창원시가 있으며 그 존재감을 시민들에게 각 인시킵니다. 매일 뉴스를 보며 어두운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이웃들이 주위에 있으며 모두가 마음을 합쳐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힘을 부어 줍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는 간단한 참여 방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이벤트의 내용을 통하여 내가 살고 있는 창원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지역상품을 이벤트 경품으로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1. 정책명

‘지구시민 in Book 서포터즈’

(다양한 UN기념일(세계 물의 날, 세계 관광의 날, 세계 이주자의 날 등)을 통해서 지구시민으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여러 UN기념일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그림책, 영화 등의 도서관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실천내용을 공유하고자 [지구시민 in book서포터즈] 정책을 제안해 봅니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의 자랑이라고 할 만큼 공공도서관이 곳곳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작은 도서관이 있어서 독서 생활 접근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활용하여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하여 UN기념일과 관련한 다양한 책들을 소개하고, 활동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전 시민 대상,
계층별 다양한 행사로 추진 가능함
(예 : 어린이의 경우, 그림책과 함께 하는 UN세계기념일 알아가기 / 중고생의 경우, 적정기술 연구 프로젝트 / 시니어계층 : UN세계 기념일관련 영화 감상 및 나눔)
- 추진 방법 : 1. 창원시 공공도서관 연령별 지구시민 서포터즈 모집
2. 온오프라인 모임을 통하여 사업 취지 안내, 및 지구시민 in book 소개
3. 공공도서관 별 UN세계 기념일 관련 도서(그림책, 전문서적, 영화) 매달 안내
4. UN세계기념일 관련 공공도서관 도서와 실천사례 서포터즈 홍보
5.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다양한 UN기념일 관련 도서, 영화 자료 열람

4. 기대 효과

UN기념일을 알고 실천하는 일은 지구시민으로 살아가는 첫걸음이 됩니다. 세계 물의 날, 세계 해양의 날 등이 곧 내가, 나의 아이들이 겪은 가까운 미래와 관련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지구시민의 발걸음이 시작됩니다. 결코 먼 아프리카의 문제가 아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한 단면을 예민하게 관찰하고 실천할 때, 세상이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창원시민들이 깨닫게 되리라 기대합니다.

1. 정책명

‘거침없이 보도블럭’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 중심가를 제외한 외곽지역은 보도블럭은 고르지 못하여 유모차, 휠체어 및 자전거 이용자들에게는 매우 불편한 곳이 많으며 특히 횡단보도 부분에 턱이 높아 내려갈 수 없는 곳이 상당수 존재함. 자전거 도시 창원을 내세우고 있음에도 정책과 동떨어진 현실임. 따라서 연말 등 예산소진을 위한 보도블럭 정비사업이 아닌 모두가 평등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철학적 방향성을 가지고 창원 곳곳의 보도블럭을 개선하는 프로젝트가 정책적으로 필요함.

3. 사업 내용

‘거침없이 보도블럭’ 사업은 바퀴가 달린 장치를 사용하는 모든 창원 시민이 불편함 없이 보도블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들 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생각됨. 동단위로 동네 및 동네 아파트 안을 순회하고 개선할 곳을 찾는 프로젝트 팀을 꾸려 제보되는 곳은 즉각 반영하여 개선하며 아파트 내 개선할 곳이 보인다면 아파트 측에 매우 강한 권고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각 자치구의 시·도원들이 함께 참여하도록 독려하여 성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4. 기대 효과

사회적 신체 약자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질 것이며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나 환경에 유익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바퀴 달린 장치 이용자(유모차, 자전거, 휠체어, 수레 등)들의 사고율이 줄어들어 건강과 경제성 모두를 아낄 것이며 안전한 보도블럭 설치로 걷는 시민들의 불편함도 해소될 것으로 보임.

1. 정책명

‘도서관은 주민들의 사랑방’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도서관이 마주한 진짜 문제는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 사람들이 한정적이고 다수를 위한 도서관이 되기에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들의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민이 원하는 도서관, 지역민이 필요한 도서관은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형성해주는 도서관이고 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 청소년이나 노인들이 활용하는 공간은 극히 한정적이고 할 게 부족하다. 그러다보니 청소년들은 폰에 집착하고 게임에 빠져들어 온라인 세상의 소통에 한정되어 가고 있다. 이런 부분들도 도서관이 함께 고민한 문제에 속할 수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쉼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이 지역민의 플랫폼이 되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지역 주민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 : 늘 찾은 이용객들만이 아닌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

※ 사업추진 및 방법 :

- 창원의 작은 도서관이나 공공도서관을 각각 주제가 있는 도서관으로 운영
- 다달이 주제가 달라지는 도서관
- 계층을 달리 하여 작은도서관의 양질의 프로그램이 동네마다 유람이벤트 프로그램
- 문학/음악/미술/건강/육아/항노화/홀로족/미혼모/싱글맘/이혼가정 등
다채롭게 구체적으로 지속적인 구성
- 지역민이 만드는 도서관, 주입식이 아닌 이용자가 만드는 도서관
예를 들어, 청소년이 운영하는 도서관 주간, 엄마들이 꾸리는 도서관 한 달 살이 등

4. 기대 효과

-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문화 형성
- ※ 소외층이 없는, 소외층에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하는 도서관 문화
- ※ 도서관에 오면 지역의 문제가 척척 해결되는 플랫폼 형성

1. 정책명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시설 보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창원시는 구창원지역은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되어 있음
- 그러나 일부 도로는 보수 등도 필요한 상황임
- 구마산지역, 구진해지역은 자전거도로가 거의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기후변화 등을 감안해도 자전거도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태임
- 창원시 전체지역의 자전거도로 신설 및 보수가 요구됨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창원시 정책당국자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타시도 대비 환경도시 완성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창원시 정책당국자가 판단 시행 필요

4.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 환경도시 완성으로 기후변화위기 대응

※ 그 외 기대효과 등

- 국민 건강 증진

1. 정책명

‘창원시내의 자전거도로 확충 및 보수’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1. 현재 창원시내의 자전거도로는 일부 양호한 상황
2. 일부 도심 (예: 마산, 진해지역)은 자전거도로가 미설치 되어 있거나, 상태가 안 좋음
3. 도심도로의 연속성 등을 위하여 자전거도로의 신설 및 보수가 필요함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창원시민의 건강증진과 교통이 쾌적함 제공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창원은 자전거도로로 우수한 도시라는 품평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음

※ 사업추진 및 방법 등 사업 실현 가능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제시

- 창원시민의 균등한 교통 환경조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구 마산지역 도로를 신설추진

4. 기대 효과

※ 사회, 경제, 환경 등 지속가능 효과

- 환경도시 완성으로 시민 건강증진
- 환경도시 선도적 역할

※ 그 외 기대효과 등

- 시민을 위한 행정 추진

1. 정책명

일본 방사능 오염 수 방출과 관련한 수산물 먹거리 안전망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산과 진해는 바다를 끼고 있고 수산물 유통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 수 방출은 피할 수 없고 그에 따른 수산물 먹거리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책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지역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역의 안전 먹거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급하고 검증하고 확인하는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 지속가능한 먹거리의 첫 번째 원칙은 바로 안전이기 때문이다.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재 창원시에 따르면 수산물의 유통과 종류 등의 자료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족자원의 연근해 데이터도 있는지 궁금하다. 바다를 끼고 있는 특성상 일본의 오염 수 유출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해 보인다. 그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여서 제안한다.

3. 사업 내용

- ※ 수혜자는 창원 시민
- ※ 타 도시에도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함.
- ※ 기존 먹거리 활동하는 단체 및 시민활동가를 구축하여 수산물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방사능 측정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창원시가 지원함으로써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사료됨.

4. 기대 효과

지역 수산물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갖는 효과가 있다.

1. 정책명

‘누비자가 달릴 수 있는 자전거 도로 확충’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누비자라는 자전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도 떨어지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안전한 도로도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제안해 봅니다.

3. 사업 내용

4. 기대 효과

자전거 도로정비와 확충으로 누비자 이용 증가 시 교통비 절감과 교통체증 해소, 나아가 친환경도시로 거듭 날 수 있다고 봅니다.

1. 정책명

‘급식 푸드 마일리지 제로! 불만도 제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의 농산물들은 질적인 면에서 타시도 농산물에 뒤떨어지지 않으며, 특히 단감의 경우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런 품질이나 우수성에 대해 정작 창원시민들은 잘 모르고 아끼지 않는 경우가 많다. 푸드 마일리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역소비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3. 사업 내용

- ※ 사업 대상(주요 수혜자 및 수혜 내용 설명) - 창원시청, 관공서, 학교 등
- ※ 기존사업과의 차별성(타시도 유사 사례 : 해당 유무) - 돌봄교실 간식지원사업이 조금 비슷할 수는 있으나 창원만의 농산물 소비 시도,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자는 취지로 본다면 별개의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 사업추진 및 방법 - 한 달에 두 번 급식에 창원산 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잘 지키는 곳을 우수 마일리지 제로 시험장으로 선정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창원산 농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 및 유튜브 업로드 등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다.

4. 기대 효과

지속적으로 실시할 때 사회적으로는 단합 효과, 창원시민으로서의 정체성확립 등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농민의 소득 증대, 창원시에 대한 브랜드가치 상승 등을 기대할 수 있다

1. 정책명

‘하나의 창원, 미래를 향해!! 나아가 경상남도의 대표 도시로!! 아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로!!’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창원시는 특례시를 목표로 마산, 창원, 진해를 합친 거대한 하나의 통합 도시가 되었다. 하지만 인구수(100만 이상)에 집중만 하였고, 그 결과 마창진으로 통합되어 누려야하는 효과인 도시의 균등한 발전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통합 10년이 된 창원에는 아직까지도 서로 다른 지역들과의 불협화음이 자주 들린다. (ex. 야구장 이름) 타도시에서 전입을 온 나는 이 도시 하나에서도 이렇게 사람들의 화합이 안 되는구나 하며 느낀다. 각 구의 발전이 서로 달라 ‘왜 합쳤냐, 기존에 분할에 있었을 대가 더 행복하다.’ 라는 이런 말도 들린다. 창원시가 아닌 통합창원시가 되기 위해서는 각 구의 균형발전과 각 구의 의원들이 이젠 ‘우린 하나의 창원이다. 창원의 미래를 위해’ 라는 이미지가 강해야 하지만, 아직은 각각의 이기주의로 인해서인지 그러지 못하는 것 같다. 예전 역사를 보면 왕권강화를 하며 나라를 통합해 새로운 나라의 인식을 박히게 했듯, 아직 창원은 그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은가 싶다. 도시 통합을 위해 합치기는 하였지만, 그 후는 나는 모르겠소 하는 생각인지 아니면 표심을 위해 그런 지역주의를 조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창원시는 아직 발전해 나가야할 미래가 한참 남은 것 같다.

창원은 이제 하나의 창원이 되기 위해서 지역주의는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찾아야 할 듯 하다. 제조업과 방위산업으로 큰 창원은 곧 있으면 인구의 감소 및 제조산업의 이전으로 인해 위기를 겪을 수 있다. 옆의 조선업으로 큰 거제도가 한순간에 타격을 입은 것을 바로 옆에서 보지 않았나...

창원은 경상남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나라경제를 살린 경험이 있는 도시이다. 창원의 미래를 위해 앞으로는 창원이 나아가야할 도시 목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한 특례시는 커녕 인구수만 많은 도시로 전락할지 모른다. 연구단지 계획을 통해 주변의 인재들의 유입을 장려하고 창원하면 무슨 도시 하는 이미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도시의 인구 감소로 인해 도와 통합을 하려 한다. 창원도 최근 뉴스를 보면 특례시의 얘기보다는 부울경 통합 이야기 많이 나오고 내용이 오가는 것 같다. 하나의 부울경을 잘 만들어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발전주의가 되어 도시의 부흥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듯 하다. 부울경을 잇는 하나의 교통을 만들어 접근성을 넓히고, 일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사람들의 유입 및 인재들의 유입이 생긴다. 창원은 분명 경상남도에서 살기 좋고 오고 싶은 도시이다. 하지만 전국으로 눈을 돌리면 그렇지 못하다. 이 또한 잘 보면 도시발전의 차이도 있지만 교육의 문제도 상당히 많다. 창원은 도시의 단합을 먼저 완료하고, 미래를 봐야하는 곳이다. 그렇지 못하면 창원 또한 다른 도시처럼 인구감소를 보게 될 것이며, 빈 공장과 빈 도로만 보게 될지도 모른다. 결국 사람들이 왜 이 도시에 와서 살고 싶은가 하고 생각하면, 결국 일자리, 교육, 삶의 질, 문화 이다. 과거에 영광을 누렸던 때를 잊고 이제 앞으로 창원은 어디에 집중을 하여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하며, 수도권과는 다른 교육환경을 어떻게 차별을 두어 아이들을 키우게 하여야 한다. 결국 그 아이들이 창원의 미래가 된다. 그리고 위와는 다른 삶의 질 차이와 문화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부울경을 하나로 합치자 하면 먼저 창원시는 나셔서 부산과 울산에 가서 보고 배워야할 점들을 잘 보고

왔으면 좋겠다. 부산의 교육환경이라던가 울산의 도시환경(공원, 도서관, 문화시스템)을 보고 참고해 사람들이 웃으며 살 수 있는 창원이 되었으면 한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 : 창원에 자부심을 느끼게 된 창원 시민

※ 문화환경 :

- 참고 : 울산의 도서관 활동. 책의 대여 및 열람실 이용의 도서관이 아닌 문화 활동, 체험활동, 놀이터, 모임의 장소가 되는 하나의 복합 시설.

※ 교통환경 :

- 참고 : 서울중심의 지하철, 버스 같은 교통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철도 확장 및 간이역의 개통. 지하철의 환승시스템 및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간이역을 활성화 하여 관광 및 이동의 활성화.

※ 일자리 연구 :

- 참고 : 대전의 대덕연구단지. 창원 및 전국의 연구소, 연구원들의 이전 및 분소, 특수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인재들의 유입 및 인구 유입.

※ 축제의 활성화 :

- 참고 : 창원은 군항제, 시민축제, 국화축제 같은 큰 축제를 할 뿐, 놀러와서 볼거리가 많이 부족하다. 젊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공모전을 통해 다양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 또는 많은 축제의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가칭 진해의 해양축제, 창원의 온천축제, 마산 아귀축제 등등 다양한 환경과 특산물 이용 등

※ KTX, SRT 활성화

- 참고 : 옆의 진주 같은 경우는 대전-통영고속도로의 개통과 동시 3시간만에 서울을 오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가 되었다. 하지만 창원은 3개의 KTX 역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구-창원 간 전용도로가 아니라서 급격히 느린 속도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다 못해 옆의 김해공항을 이용하여 오가는 실정. 철도를 개선하여 정상속도의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SRT를 유치하게 되면 창원은 더욱 발전할 수 있다.

4. 기대 효과

창원이라는 도시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생각하기 보다는, 도시는 어떻게 형성이 되었으며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는 어떤가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결국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거나 광역시로 몰리는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결국 일자리, 교육, 삶의 질, 문화 이다. 단순 인구수를 늘렸다고 광역시, 특례시가 되고 도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도시가 발전할 수 있다 라는 미래가 보이면 자연스레 사람들이 모여 도시는 커지게 되어 있다.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 이다. 창원은 제조업, 방위산업으로 컸지만 이제 미래의 시대는 그 부분들이 많은 한계에 직면해 있다. 결국 새로운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찾게 만들어주면 사람들은 모인다. 하지만 교통의 발전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만 오기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 아이를 키우고 싶다 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에, 많은 육아지원활동 및 보육시설, 학교 등의 시설이 갖춰지면 사람들은 정착을 한

다. 또 과거와는 달리 사람들은 삶의 질을 바라보며 따지기 시작했다. 워라벨이라 하지 않나.....그러기 위해서는 타도시로 놀러가는 것이 아닌 도시 내에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및 복합시설, 공원, 관광 등의 사업을 해나가면 누구나 부러워하는 도시가 된다.

통합창원이 된지 10년. 10년은 강산이 바뀐다고 하지만 내가 보는 창원은 아직도 지역주의로 인해 통합이 덜 되어 있는 모습이다. 창원이 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의를 없애고 통합의 관점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야한다. “도시의 발전” 나아가 “부울경 통합” 이다. 부울경이란 말이 각각의 서로 다른 생각에서, 살기위한 하나의 방편에서 나왔으리라고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부산의 장점과 울산의 장점은 분명 있다. 창원은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도시로 그 부분을 앞장서서 그 장점들을 잘 유입하고 이용을 하고, 더불어 도시의 발전을 이끌어 가면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사람들은 창원에 살고 싶어 하고 도시는 발전할 수 밖에 없다. 내가 살아야할 창원. 내가 그려보는 창원의 미래. 이런 부분이 보여 내가 살고 싶어야 다른 누군가도 살고 싶어하는 곳이 아닐까 하며 생각해본다.

1. 정책명

‘창원시 남녀존중데이’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할로윈데이, 만우절 등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남녀의 역할을 바꿔서 수행 해보는 날을 만들고, 서로를 이해 해보는 기회를 가지는 즐거운 분위기를 형성하여 서로에 대한 존 중을 배우는 날을 만들어야 합니다.

3. 사업 내용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를 생각하여 내용을 기안

- 사업대상 : 전국민

- 사업내용 :

1) 남녀존중데이(축제, 박람회 개최)

- 군복 입어보기(여성):대체로 남성이 군대를 많이감
- 산모복 체험(남성)
- 축구나 농구 해보기(여성):대체로 남자가 하는 운동
- 요가, 필라테스 체험(남성):주로 여성이 많이함
- 긴머리, 짧은 머리 체험(여성과 남성 서로서로) 등

2) 인증샷 등을 통해 의미있는 기념품 전달 등 시상

4. 기대 효과

- 여성이 남성이 서로간에 주로 하는 운동이나 직업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해를 도우며, 편 견을 줄일 수 있는 기획의 장을 조성할 수 있음.

1. 정책명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쉬운 도시 창원’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사실 아파트 밀도가 낮은 곳은 높은 곳에 비해 버스 노선이 지나치게 저다. 하여 현재 그 동에 사는 주민들에게 개인 자차는 필수이다. 개인 자가용이 통상 5좌석 중에 1.5좌석만이 활용되는 실정을 본다면 현 대중교통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3. 사업 내용

※ 사업 대상은 버스 노선이 적은 주민, 버스 시간이 끊겼을 시 귀가하는 주민, 환승을 해야집 갈 수 있는 주민들이 될 것이다. 기존 차량 공유제를 변경해 같은 시간대 유사 장소를 같은 인원이 총당될 시 그 인원들을 묶어서 이동하는 것이다. 어플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며 결재구조는 선불이라 시간관념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하고 운전자로 선택한 사람에게는 할인을 주면 공평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다. 제안 배경에 밀도가 낮은 자가 대중교통에 소외된다고 했는데 차 배정은 동 별로 지정했다가 추후 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조절하면될 것 같다.

4. 기대 효과

그냥 편해서 자차를 이용하는 분도 있지만 대중교통이 불편해 자차를 고집하는 인원도 많다. 그 사람들이 수정된 차량 공유제를 이용한다면 탄소 배출은 감소할 것이며 선진 제도에 창원시로 유입될 인원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1. 정책명

‘내가 사는 지역에서 음식먹기’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로컬푸드 행사 규모를 조금 더 크게 해서 다양한 종류의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하면 좋겠습니다.

3. 사업 내용

창원시에서 지역먹거리를 하는 농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비자와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구축한다. 어떻게 재배되고 관리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오픈하여 소개한다.

4. 기대 효과

로컬푸드 사업으로 농민들에게 판로를 제공해서 좋고 소비자도 어떻게 재배되는지 정보를 알면 믿음이 더 갈 것이다.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고정적인 소비자 구축도 될 것이다.

1. 정책명

‘동물 서커스, 쇼 금지’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동물들을 학대하여 행해진 서커스 등이 존재하고 있다. 인간의 단순한 순간의 즐거움을 위해 생명이 희생되어지는 것은 끔찍한 일이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과 더불어서 강경하게 법적으로 규제를 해야 할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3. 사업 내용

야생성을 없애기 위한 학대 행위로 죽어나가거나 희생되는 동물들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위반시에는 서커스에 행해진 동물들을 보호 센터에 옮기고 동물 수에 따라 처벌금액을 최소 200만원부터 그 이상까지 책정되게 한다.

4. 기대 효과

사회 구성원에 대해서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우치게 하고 동물 권리가 신장되어 동물 학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나비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3

우수 정책
선정 회의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3 우수 정책 선정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2. 16(수) 15:00 ~ 17:00
- 장 소 : (주)해맑음

참석자 명단

- 참 석 : 총 9명의 위원 중 6명 참석
- 참 관 :
- 사무국 : 김연옥 팀장, 윤한진 간사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참석
1	이찬원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
2	이상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소장	
3	정은희	경남대학교LINC+사업단	센터장	
4	이명숙	진해여성회관	운영팀장	
5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
6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
7	이찬우	강림환경연구원	기획부장	○
8	박경숙	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자원순환마을분과	분과장	○
9	이종훈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심사 기준 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총 점		40
정책 평가	타 당 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규모, 추진방향, 지속가능성 등	10
	실행가능성	구체적인 실현가능성 - 추상적인 정책 제안 제외	10
	독 창 성	타시도와의 차별성과 창원시에 맞는 독창성	10
	공 익 성	주민수혜, 편의증진, 주민참여	10

회의사진





4

1차 도서 선정 회의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4

1차 도서 선정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0. 09. 28.(월) 16:00 ~ 18:00
- 장 소 : 창원시청 스마트 회의실

참석자 명단

- 참 석 : 총 9명의 위원 중 6명 참석
- 참 관 :
- 사무국 : 김연옥 팀장, 윤한진 간사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참석
1	이찬원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
2	이상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소장	
3	정은희	경남대학교LINC+사업단	센터장	
4	이명숙	진해여성회관	운영팀장	○
5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
6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
7	이찬우	강림환경연구원	기획부장	
8	박경숙	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자원순환마을분과	분과장	○
9	이종훈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회의 결과 정리

- 5개 분야로 나누어 투표를 통해 필독 도서 선정
- 시민들은 필독도서를 선택하고 교양도서 선택예정
- 필독도서를 읽은 뒤 정책제안을 받을 예정
- 다음 회의는 10월 7일 예정

회의사진





5

2차 도서 선정 회의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5

2차 도서 선정 회의

회의개요

- 일 시 : 2020. 10. 07.(수) 16:00 ~ 18:00
- 장 소 : (주)해맑음

참석자 명단

- 참 석 : 총 9명의 위원 중 5명 참석
- 참 관 :
- 사무국 : 김연옥 팀장, 윤한진 간사

연번	성 명	소 속	직위	참석
1	이찬원	경남대학교 환경에너지공학과	명예교수	○
2	이상용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소장	○
3	정은희	경남대학교LINC+사업단	센터장	
4	이명숙	진해여성회관	운영팀장	
5	안명선	지속가능미래연구소	원장	○
6	유현석	창원YMCA	사무총장	○
7	이찬우	강림환경연구원	기획부장	
8	박경숙	창원마을공동체네트워크 자원순환마을분과	분과장	○
9	이종훈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회의 결과 정리

- 최종 필독도서 7권 선정
-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필독, 교양도서 구매 예정
- 제안된 정책은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심사 예정
-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책은 창원시청 북카페에 비치 예정

회의사진



필독 도서 목록(총7권)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1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김병권	사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이 사회적 및 자연적 재난은 우리에게 복합적인 어려움을 야기한다. 재난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로 인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중되는 고통,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함께 겪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재난에 대응하는 우리 사회의 '시스템'과 전략이 준비되어 있느냐에 대한 것이다. 코로나19에 이어, 기후위기는 외면할 수 없는 위협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시대적, 문명적 '전환' TRANSITION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 '전환'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 전 사회적인 논의가 '긴급성'을 가지고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2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최원형	여덟 가지 소비 행동을 통해 보는, 나와 자연의 연결 고리 알고 나면 생수 한 병의 의미가 달라질 거야 초등과 중등 사이 10대를 위한 과학 교양 시리즈 <과학 쫓 아는 십대> 시리즈 3권은 《인공지능 쫓 아는 10대》《물질 쫓 아는 10대》에 이어 환경과 생태 문제를 다룬다.《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는 현대인이 쉽고도 흔하게 행하는 여덟 가지 소비 장면을 포착하여, 나의 소비가 어느 계층의 누구에게, 어디에 있는 어떤 생물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3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피터 오스터 비르 외	지구화된 세계에서 먹거리 생산과 공급은, 농장에서 식탁으로 이어지는 물질적인 이동뿐 아니라 그를 둘러싼 사회적 행위자들의 네트워크와 금융, 문화, 정치, 정보 등의 흐름을 모두 포괄해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흐름이 관여하는 세계 먹거리공급은 다층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에서 영향을 주고받는다.『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지구화 시대의 먹거리 생산과 공급이 해결해야 할 이슈는 무엇인지, 다음 세대까지 먹여 살릴 수 있는 지속가능성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현재의 먹거리체계를 변혁할 수 있는 주체들은 누구인지 살펴보는 책이다.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4	코끼리를 타면 안돼요?	공주영	소비와 관련된 8가지 주제를 이야기로 담은 어린이교양서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는 로컬 푸드, 공유 경제, 공정 무역, 사회적 기업, 소비자 협동조합 등 착한 소비와 관련된 8가지 주제를 여덟 나라의 이야기로 담은 어린이 교양서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소 막연하고 묵직한 주제일 수 있지만, 작가는 각 나라의 어린이를 화자로 이야기로 풀어내 어린이 독자들도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우리 일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소비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려주고, 어린이들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5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에릭클 라이넨 버그	우리가 함께할 때 비로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 물려주고 싶은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뉴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인 사회학자 에릭 클라이넨버그의 답변이 담긴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2019 앤드루 카네기 메달 논픽션 부문 후보에 오른 이 책에서 저자는 총 여섯 장에 걸쳐 우리 사회를 둘러싼 쟁점들을 다루며 도시의 가치와 미래를 조명하고, 나와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의 중요성을 역설한다.
6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	조성화 외	교사를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다룬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 지속가능발전교육을 교사의 시각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 내용을 서술한 책이다. 학교에 직접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제시했다.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론, 방법, 사례, 평가, 전망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을 유지하여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7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윤희, 윤예림	UN 세계 기념일로 배우는 멋진 지구인을 위한 지구 사용 가이드 2019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사업 선정작. 세계 여성의 날(3/8), 해양의 날(6/8), 도시의 날(10/31), 이주자의 날(12/18), 인간 연대의 날(12/20) 등 UN에서 정한 세계 기념일을 물꼬로, 2030년까지 전 세계가 함께 이루어 가야 할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해 서술한 책이다.'인터넷을 사용할수록 난민이 발생한다고?'라면을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먹을수록 열대 우림이 사라진다면?’과 같이 나와 사회, 세계를 연결하는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를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세계에서 직면한 여성·환경·노동·차별·혐오 등의 뜨거운 이슈를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매 챕터 뒤에‘세계 시민 To Do List’를 제안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으나마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때에 변화를 볼 수 있음을 전하려 했다. 저자 공윤희·윤예림은 일상 속에서 착한 세계화를 이루려는 비영리단체‘세계시민교육 보니따(BONITA)’를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 자료참고 : 네이버 책 참조

교양 도서 목록(총100권)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1	10대와통하는환경과생태이야기	최원형	2015-10-18
2	1cm 다이빙	태수,문정	2020-01-21
3	1일 1페이지, 세상에서 가장 짧은 교양 수업 365 : 인물편	데이비드 S. 키더,노아 D. 오펜하임	2020-07-23
4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윌러스 웰스	2020-04-22
5	6도의 멸종	마크 라이너즈	2014-09-25
6	82년생 김지영	조남주	2016-10-14
7	90년생이 온다	임흥택	2018-11-16
8	가이아	제임스 러브록	2004-03-20
9	감정의 발견	마크 브래킷	2020-08-25
10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2020-04-30
11	공기파는사회에반대한다	장재연	2019-05-14
12	국가란 무엇인가	유시민	2017-01-23
13	그 환자	채스퍼 드윗	2020-08-12
14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2019-09-27
15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2020-09-07
16	나의첫차박캠핑이야기	오영교	2020-10-13
17	넛지	카스 R. 선스타인/리처드 H. 탈러	2018-11-23
18	달 너머로 달리는 말	김훈	2020-06-15
19	더 시스템	스콧 애덤스	2020-07-17
20	더 해빙	이서윤,홍주연	2020-03-01
21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 자기관리론	데일 카네기	2020-02-10
22	데일카네기 인간관계론	데일 카네기	2015-06-20
23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2018-09-12
24	돈의 속성	김승호	2020-06-15
25	라틴어 수업	한동일	2017-06-30
26	루거 총을 든 할머니	브누아 필리퐁	2019-07-30
27	룬샷	사피 바칼	2020-04-27
28	마산의 근대사회	유장근	2020-05-30
29	마을이일자리를디자인하다	하토리 시게키 외	2017-02-10
30	말센스	셀레스트 헤들리	2019-02-25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31	말의 품격	이기주	2017-05-29
32	몰입건기	성기홍	2017-04-24
33	무례한 사람에게 웃으며 대처하는 법	정문정	2018-01-08
34	문버드	필립 후즈	2015-05-18
35	물의 나라	최재왕	2020-08-14
36	방구석 미술관	조원재	2020-04-10
37	배움의 발견	타라 웨스트오버	2020-01-05
38	보건교사안은영	정세랑	2020-09-11
39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2020-05-27
40	부의 인문학	브라운 스톤	2019-10-04
41	사랑 밖의 모든 말들	김금희	2020-04-23
42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2015-11-23
43	살고 싶다는 농담	하지웅	2020-08-12
44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지식	김억수 외	2020-07-20
45	생태시민성과 페다고지	김병연	2015-06-20
46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2019-07-17
47	설민석의 책 읽어 드립니다	설민석	2020-05-18
48	성장을 넘어서	허먼 데일리	2016-11-15
49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박영숙	2020-06-05
50	세상물정의 사회학	노명우	2013-12-30
51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안네 스베르드루프 튀게손	2019-12-16
52	심판	베르나르 베르베르	2020-08-30
53	쓰레기책	이동학	2020-02-26
54	아몬드.	손원평	2017-03-31
55	아비투스	도리스 메르틴	2020-08-03
56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2019-02-26
57	안전지대로 우리동네를 바꿨어요	배성호	2017-10-20
58	어른의 어휘력	유선경	2020-08-15
59	어업의 품격	서종석	2020-10-05
60	어촌자본주의	이노우에 교스케	2016-08-24
61	언어의 뇌과학	알베르트 코스타	2020-08-14
62	역사의 쓸모	최태성	2019-06-14
63	역사의 역사	유시민	2018-06-25
64	오늘부터 딱 1년,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샘 혼	2020-01-20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65	오래 준비해온 대답	김영하	2020-04-29
66	완전학습 바이블	임작가	2020-08-18
67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2019-06-24
68	육식의종말	제레미 리프킨	2002-01-31
69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2018-10-20
70	이수정 이다혜의 범죄 영화 프로파일	이수정, 이다혜 외	2020-03-31
71	이야기의 탄생	월 스토	2020-05-15
72	일 잘하는 사람은 단순히 말합니다	박소연	2020-05-18
73	일의 기쁨과 슬픔	장류진	2019-10-25
74	읽기만 하면 내 것이 되는 1페이지 한국사 365	심용환	2020-06-17
75	작가들의 비밀스러운 삶	기욤 뭈소	2019-11-21
76	잘가, 석유시대	해리엇 러셀	2020-08-22
77	전쟁과 농업	후지하라 다쓰시	2020-08-20
78	정리하는 뇌	대니얼 J. 레비틴	2015-06-22
79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2014-11-20
80	정의로운 전환	김현우	2014-10-24
81	조선을 구한 신목, 소나무	강판권	2013-06-28
82	존리의 부자되기 습관	존 리	2020-01-15
83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박경화	2019-07-17
84	지구를 생각한다	김수병 외	2009-09-28
85	지구의 내일을 부탁해	일반사단법인	2019-10-04
86	지리의 힘	팀 마샬	2016-08-10
87	지속가능한발전이야기	카트린느 스테른	2007-11-27
88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 제로 편	채사장	2019-12-24
89	진짜 부자 가짜 부자	사경인	2020-04-17
90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김웅철	2017-10-25
91	코스모스	칼 세이건	2006-12-20
92	타인의 해석	말콤 글래드웰	2020-03-20
93	트렌드 코리아 2020	김난도	2019-10-24
94	파타고니아,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을	이본 쉬나드	2020-04-30
95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	강윤주 외	2020-08-31
96	하버드 상위 1퍼센트의 비밀	정주영	2018-10-17
97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강양구, 권경애, 김경율, 서민, 진중권	2020-08-25
98	화이트 호스	강화길	2020-06-12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99	환경과 사회	김영래	2007-02-28
100	환경의 역습	박정훈	2004-09-03



6

창원시청, 창원시 의회
북카페 책 비치
'SDGs 미니도서관'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6

창원시청, 창원시 의회 북카페 책 비치'SDGs 미니도서관'

개요

- '읽고 제안하기' 도서선정위원회에서 추천된 책 46권을 창원시청 스마트회의실, 창원시의회 북마루에 'SDGs 미니도서관' 형태로 비치
- 창원 시민, 공무원, 시의원의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목적

비치장소

- 창원시청 본관 지하1층 '스마트회의실'
- 창원시의회 1층 '북마루'

도서 목록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1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김병권	2020
2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최원형	2019
3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피터 오스터비르 외	2015
4	코끼리를 타면 안돼요?	공주영	2017
5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에릭클라이넨버그	2019
6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	조성화외	2015
7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공윤희, 윤예림	2019
8	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	2019
9	성장을 넘어서	허먼 데일리	2016
10	도넛 경제학	케이트 레이워스	2018
11	세상물정의 사회학	노명우	2013
12	생물문화다양성과 전통생태지식	김억수외	2020
13	환경의 역습	박정훈	2004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14	6도의 멸종	마크 라이너즈	2014
15	가이아	제임스 러브록	2004
16	쓰레기책	이동학	2020
17	잘가, 석유시대	해리엇 러셀	2020
18	세상에 나쁜 곤충은 없다	안네 스베르드루프 튀게손	2019
19	나는 풍요로웠고, 지구는 달라졌다	호프 자런	2020
20	문버드	필립 후즈	2015
21	2050 거주불능 지구	데이비드 윌러스 웰스	2020
22	물의 나라	최재왕	2020
23	생태시민성과 페다고지	김병연	2015
24	지구를 생각한다	김수병 외	2009
25	10대와 통하는 환경과 생태 이야기	최원형	2015
26	공기 파는 사회에 반대한다	장재연	2019
27	어촌자본주의	이노우에 교스케	2016
28	어업의 품격 -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서종석	2020
29	마산의 근대사회	유장근	2020
30	정의로운 전환	김현우	2014
31	마을이 일자리를 디자인하다	하토리 시게키 외	2017
32	안전지도로 우리동네를 바꿨어요	배성호	2017
33	초고령사회 일본에서 길을 찾다	김웅철	2017
34	공간이 만든 공간	유현준	2020
35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	우종영	2019
36	육식의 종말	제레미 리프킨	2002
37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1975
38	전쟁과 농업	후지하라 다쓰시	2020
39	나의 첫 차박캠핑 이야기	오영교	2020
40	몰입견기	성기홍	2017
41	세계미래보고서 2035-2055	박영숙	2020
42	조선을 구한 신목, 소나무	강판권	2013

연번	도서	작가	출판년도
43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생활예술	강윤주 외	2020
44	지속가능한 발전 이야기	카트린느 스테른	2007
45	지구를 살리는 기발한 물건 10	박경화	2019
46	지구의 내일을 부탁해	일반사단법인	2019

사진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스마트회의실'



창원시청 본관 지하 1층 '스마트회의실'



창원시의회 '북마루'



창원시의회 '북마루'



7

‘읽고 제안하기’
참여자 명단

suggest

reading

online

changwon

2020년 지속가능한 창원 ‘읽고 제안하기’

시민 온라인 독서 교육



7

‘읽고 제안하기’ 참여자 명단

연번	아이디	도서명
1	csrse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2	haksook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3	miss2000c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4	b612kmj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5	madonna282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6	kamnye96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7	rlatjwls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8	mcy4kshhu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9	suuu1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10	ark305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11	11ajkkk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12	childmisu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13	jina3430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14	peace7453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15	jungan05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16	skymom13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17	k790100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18	qjh2004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19	boram639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20	hisapgirl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21	baduck73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22	heesun7604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23	woon5125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24	ok3651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25	edi380	환경과 생태 쫓 아는 10대
26	yesys0219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27	jrsimh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28	idideo3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29	moon12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
30	djwlsdl95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31	hajin0207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연번	아이디	도서명
32	powderjs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33	fbi7755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34	haneuli04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35	bjh1230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36	whitehappi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37	fafadol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38	clearamber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39	bhjijy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40	sjm0705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41	xuehua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42	ogong01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43	hoi5823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44	mm1116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45	of2000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46	mythra524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47	ds5poy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48	sliver26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49	qutesuni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
50	kkamuiya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51	youk6401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52	kysyokr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53	cj4103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54	yhj703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55	lmhlmh1414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56	tlrrn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57	foryoung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58	pangzzini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59	mari0505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60	unfriend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61	lks3930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62	jb3338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63	goljt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64	meka100475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65	lovesky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66	ezieho	환경과 생태 쫄 아는 10대

연번	아이디	도시명
67	water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68	hk2843	환경과 생태 쏘 아는 10대
69	rm0705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70	huei1982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71	ddkiwi88	교육과 지속가능발전의 만남
72	henna3139	환경과 생태 쏘 아는 10대
73	lshhjy1004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74	wltordl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75	wnsdud1745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76	jforever01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77	jscchung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78	wjdtpgus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79	kbosai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80	ggriya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81	forgsed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82	jjjjjoun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83	jjj8334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84	comsafe119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85	godns20202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86	dreamseyes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87	gloryinwoo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88	jjwook312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89	patris78	먹거리, 지구화 그리고 지속가능성
90	heragay77	환경과 생태 쏘 아는 10대
91	rjstnfl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92	anyone8808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93	xxx39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94	11eunyyy	오늘부터 나는 세계시민입니다.
95	areswar77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선 그린뉴딜
96	han200091	환경과 생태 쏘 아는 10대
97	romehhh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98	skdud17	코끼리를 타면 안 돼요?
99	himok9	도시는 어떻게 삶을 바꾸는가
100	goddns20	환경과 생태 쏘 아는 10대

